

윤석열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2.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특위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를 정립하고, 2022년 하반기 운영된 3개 특위의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통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단순한 평등을 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 개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국민 전체가 조화롭게 소통하는 방향을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한길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과 연대 강화가 필요한 곳에는 항상 국민통합위원회가 있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믿음과 희망을 갖는 윤석열정부 표 국민통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북교육청 'MATH-버스 타고 온중학교 가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중학생 대상 학습지원 행사 운영

경북교육청은 지난 19일(월)과 20일(화) 양일간 학생 및 교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ATH-버스 타고 온중학교 가자'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중학생 대상 학습지원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1년 11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영 중인 중학 수학 학습 플랫폼 '온중학교'의 한 해 수업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온라인 체험 행사로 개최됐다.

도내 중등 수학 교사 50여 명으로 구성된 '온중학교' 수업 운영 교사가 직접 메타버스 플랫폼인 'ZEP'에서 가상 학교 맵을 제작했으며, 온중학교 우수 수업 영상, 수학 학습컨설팅, 수학 체험교실, 수학 방탈출게임, 장애물달리기 게임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경북교육청은 메타버스 가상 전시 공간을 통해 '온중학교' 우수 수업 영상 및 도내 각 지역의 수학체험전 영상을 전시해 메타버스에 접속한 학생들이 '온중학교' 학습 플랫폼을 포함한 경북의 다양한 수학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방탈출게임과 장애물달리기 등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도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

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활발하게 참여한 결과를 실시간 반응과 방명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게임형 경쟁과 퀴즈 요소를 통해 재미를 가지고 수학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만들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이 1대 1로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20분 내외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수학 학습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컨설팅 만족도가 높아 학생과 교사 모두가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수학 학습컨설팅에 참여한 한 학생은 "수학 학습에 대한 부족한 부분과 성적 고민을 선생님께서 털어놓고 세심한 상담을 통해 수학 학습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컨설팅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표실했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메타버스의 장점을 활용, 학생들이 '온중학교'와 수학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행사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중학 수학 학습 플랫폼 '온중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남도, '우주산업 협력지구 위성 특화지구' 지정

우주항공청, 우주산업 협력지구를 중심으로 경남을 우주산업의 메카로 조성

경남도가 우주산업 협력지구 위성 특화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경상남도는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협력지구 지정 검토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 협력지구 위성 특화지구 후보지로 지정된 바 있으며, 21일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지정이 결정됐다.

경남의 위성 특화지구는 전남의 발사체,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와 함께 우주산업 협력지구 삼각체제의 큰 축을 담당하며, 국내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앞선 우주항공청 경남 사전 설립 확정에 이어, 이번 우주산업 협력지구 위성 특화지구 지정으로 국내 우주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는 민간 우주개발(New Space) 시대에 발맞춰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집적단지 개념이다.

정부가 이끄는 우주개발 방식에서 민간 주도 우주개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위성 산업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할 우주 분야 대기업(체계종합기업)이 존재하고, 관련 기업이 다수 집적되어 있으며, 우수한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뉴스페이스 시대의 도래로 향후 민간 및 공공 위성 발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된 지역 중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위성 산업의 선도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경남을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했다.

경남이 우주산업 생산액이 전국의 43%를 차지하고 국내 최대 우주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를 포함해 53개 우주대표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125개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전후방연관 산업과의 연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2021년 상반기부터



우주산업 육성전략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기초 자료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시행했다.

또한 수차례의 산·학·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속 협의 노력한 결과 이번 우주산업 협력지구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경남은 진주·사천 일원을 중심으로 위성 개발의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주 기업이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위성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현재 조성 중인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이하, 항공국가산업단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우주기업은 항공과 우주사업 분야를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이 대부분으로 인근에 집적된 항공과 우주기업은 상호 간 연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국가산업단은 진주와 사천에 각각 25만 평 규모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총사업비 5,152억 원(예정)을 투입하여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현재 진주 상대동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를 '(가칭)우주환경시험시설'로 명칭 변경

하고, 항공국가산업단 진주지구(진주시 정촌면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대규모 확장(현재 규모의 10배 수준)이전할 계획이다.

우주환경시험시설은 급격한 증가 예상되는 민간 위성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궤도·전자파환경시험시설 등을 갖춘 국제수준의 시설로 구축되고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항공국가산업단 사천지구에는 '(가칭) 위성제조혁신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위성제조혁신센터는 위성 특화지구의 중심축으로 관련 연구·제조·사업화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집적해 산업을 선순환하는 스페이스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비즈니스존, 메이커존, 네트워크존, 기업 입주공간 등으로 구성되는 위성제조혁신센터는 2026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구축된 핵심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지원 사업, 연구·개발 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며 우주기업을 집적화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 외에도 소형위성 핵심 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22~26년, 67억 원), 우주기업의 우주산업 참여 유도 및 이력 확보 지원을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

(23~27년, 50억 원)'도 시행한다.

경남도는 위성 특화지구가 조성되면 2031년까지 도내에서 4,467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2,04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316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거정통부의 우주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주 분야 종사자의 44%가 석·박사급 인력으로 지역 내 고급 인력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특화지구 지정과 관련해 "우주항공청 사전설립 확정과 함께 이번 우주산업 협력지구 위성특화지구 지정으로 경남이 우주산업을 선도할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협력지구를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우주산업을 경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 키워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우주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민선8기 도정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수도 실현'을 도정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청 내 전담부서인 '항공우주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장재현기자



충북도 지역사회 호응 UP, 신중년 행복 Upgrade

충청북도는 21일 청주 S컨벤션에서 2022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중년 사회공헌 참여자, 참여기관 및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해 사회공헌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1년 동안 해당사업에 적극 활동한 참여자들에게 응원과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22년 사업성과와 사회공헌으로 그려보는 신중년 행복디자인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신중년 참가자, 참여기관 우수사례 공유 및 특별공연이 진행됐다.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은 만50세부

터 70세 이하 퇴직자들의 경력을 활용하여 비영리영역에서의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 사업으로, 올해는 문화예술, 사회복지, 노인상담, 미용서비스 등 13개 분야에 63개 기관, 322명의 참여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등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열정적인 참가자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신중년의 일차리 창출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경북도의회, 송년행사와 함께 2022년도 회기 마무리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1일(수), 제336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한 해 의정활동 전반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23년도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의미로 2022년도 송년회를 개최했다.

2022년 경상북도의회는 11대의 회가 마무리되고 12대의 회가 새로이 개원한 해로, 7월 4일 12대 개원 이후 3차례 임시회와 2차례 정례회 등 쉼 없이 계속된 일정 속에서, 78건의 조례안과 32건의 동의안, 8건의 예산·결산안 등 총 163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한해를 마무리 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경북도청·경북교육청 집행부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우수의정활동 수상의원에 대한 시상과 의정활동지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장도 수여했다.

배한철 의장은 송년사를 통해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행복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들과 집행

부 간부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지원' 등 유의미한 변화와 함께 12대의 회가 개원한 만큼, 이러한 지방자치 변화의 중심에 경상북도의회가 설 수 있게끔 다가오는 2023년 계묘연에도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적극적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당부드린다"며 송년사를 마무리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AI시대, 인성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부위원장(국민의힘, 남양주7)이 제안한 '인성교육의 과거와 미래: AI시대, 인성교육의 미래를 말하다'가 12월 20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를 맞이하여, 인성교육의 과거와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인성교육의 미래를 대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는 "공자·맹자·순자의 인성관과 교육 방법론 그리고 현대교육 적용"에 대해 황갑연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서는 △양정옥 소장(남양주가족상담소), △이병철 회장(대한민국인성영화제), △정하나 겸임교수(명지대학교), △김주안 대표(주식회사 메타빌), △한혜주 장학관(경기도교육청 미래인성교육과)이 참여했고 권성동·김기현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영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 최상익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황갑연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인성교육은 동서고

금을 막론하고 교육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공자·맹자·순자 등 중국 교육학을 소개하고 현실에의 적용방안을 제시했고, 특히 공자의 정신을 통해 인성교육현장에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정옥 남양주가족상담소장은 "지난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는 38.5%가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를 꼽아 인성교육 강화가 중요한 교육과제로 드러났다"며 가정·사회·학교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성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철 대한민국인성영화제 회장은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노래 확산보급 캠페인 경험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인성영화제를 개최한 경험을 소개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하나 명지대학교 겸임교수는 기술의 발달로 시대의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발 하라리가 말했듯 우리 학생들이 미지의 것을 포용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알려주는 인성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안 (주)메타빌 대표는 "메타버스를 통한 인성교육에서 해당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성교육의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관계 기술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디지털기술에 익숙한 10대들의 인성교육에 메타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혜주 경기도교육청 미래인성교육과 장학관은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디지털 시민·인성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병길 부위원장은 "인성교육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이야기들이 바탕으로 인격에 대한 존중, 신뢰와 소통 등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함양하고 있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조혜영기자

충남도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사회 통합방안 논의

'농가 외국인근로자 연구모임' 3차 회의... 관련부처 유기적 협업 강조



충남도의회 '농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0일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지역사회 통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구모임은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회 김석근 의원(금산1·국민의힘), 충남도 및 논산시 관계부서 담당자와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중인 논산 농민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박미정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한국어학과 교수는 국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실태를 개나, 호주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계절근로자 배치 전담기관 설립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가족·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요건 완화 및 확대 ▲성실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및 농업숙련인력 자격 부여 ▲농

어촌 상황을 고려한 업무계약 ▲농어촌지역 다문화감수성·인권 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

윤기형 의원은 "연구모임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라오스 중앙정부와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수급과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며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개선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안산시의회 본오뜰 침수 대책 특위, 활동 중간보고회 '개최'

2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市 관계자·주민 등과 그간 활동 사항 공유 및 향후 계획 논의

안산시의회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태순)가 최근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활동사항을 지역 각계와 공유했다.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특위 박태순 위원장과 설호영 부위원장, 이대규 이치화 한명훈 최찬규 위원을 비롯해 송바우나 의장, 안산시 녹지와 및 환경정책과 건설도로과 시민안전과 농업정책과 관계자, 본오뜰 농민,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는 참석자 소개와 활동사항 보고,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보고에 나선 박태순 위원장은 특위 위원 소개와 활동 세부 내용, 향후 계획 등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보고에 따르면 특위는 폭우로 인해 발생한 본오뜰 등지의 침수 피해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5일 구성됐으며, 그동안 세 차례의 현장활동을 통해 안산갈대습지와 반월천 제수문, 시화호 조력발전소, 세계정원 경기가는 조성지의 피해 현황과 발생 원인, 복구 상태 등을 점검했다.

특위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8월 9일 0시경 호우로 인한 본오뜰 지역의 침수 민원이 최초로 접수됐으며, 당시 반월천 제수문은 1개가 미개방, 나머지 4개는 1/2만 개방된 상태로 수문에 부유물 등이 쌓여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화성시



측이 관리를 맡고 있는 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된 시각은 이날 새벽 3시 40분경이었다.

이로 인해 반월천의 물이 넘쳐 인근 본오뜰 농지 86,281,000㎡ 중 113,865㎡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때문에 본오뜰 등지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시화호 수위를 나타내는 그래프 자료와 시화호 조력발전소 전력 거래량 데이터를 분석해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폭우 직전에 방류량을 늘려 관리 수위 밀로 수위를 낮췄고 폭우가 있었던 시기에 발전을 멈췄기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특위는 본오뜰 지형 분석을 통해

반월천 수문 지역 고도보다 본오뜰 지역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로써 특위는 당시 시화호조력발전소의 조치와 반월천 제수문의 개방 상태, 인근 지역의 고도 등을 종합했을 때 반월천 제수문이 제때에 열리지 못한 것이 본오뜰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안산갈대습지와 관련해서는 세계정원 경기가는 조성 부지의 토사가 우수관을 타고 갈대습지로 대량 유입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경기도가 설계 변경을 통해 경기가는 조성부지 주변에 침사지(沈沙池)를 설치,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정부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의원들이 움직였다

이태원 참사 등으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 40명 전체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열린 제283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대영의원은 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연내 통과되도록 제안했고, 전체의원들의 공동발의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옥외행사에 대한 어떠한 안전관련 조례가 없었던 인천시는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모임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특히, 본 조례를 통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재난기본법 및 공연법에서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사고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김대영의원은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듯이, "안전한 생각으로 수많은 인명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며 "시민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 소통과 업무공유를 통하여 사전 예방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류석.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대전 (112)	문화부:대전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대전 (113)	부동산부:대전 (117)
	경제부:대전 (114)	오피니언부:대전 (118)
	스포츠부:대전 (115)	지방부:대전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로 534 4층 411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 겪는 임차인지침서...상담사례집 발간

올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접수된 1만 3천여 건 중 대표유형 133건 선별해 엮어

Q. 2년 계약기간으로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던 중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됐고 새 건물주는 본인 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약을 계속 연장해 영업할 생각이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도 안 써주고 직접 사용한다는데 계약기간 만료 시 가게를 비워줘야 하나요?

A.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6개월 전~1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3개월분 이상 월세가 연체되는 등 법으로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기간 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하는 내용증명, 전화통화 녹취 등의 자료가 있다면 빠른 분쟁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기간, 권리

금 회수 및 임대료 조정 등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한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올 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다룬 총 1만 2,822건('22. 11월 기준) 중 대표유형 133건을 뽑아 실제 상담처럼 질문, 답변형식으로 엮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를 숙지해 유사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인 임차인, 임차인간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2022년 개소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전문가 센터에 상주하며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

공하고 분쟁 발생에 따른 대응방법 등도 제시한다.

상담은 전화, 온라인, 방문으로 가능하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가집단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104건의 분쟁조정을 개시했고, 93건의 합의를 이끌어 내 조정률이 89.4%에 달했다.

강남대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상담사례집은 잘못된 상가임대차법 해석과 현행법을 벗어난 거래관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가임대차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공하고 분쟁 발생에 따른 대응방법 등도 제시한다.

상담은 전화, 온라인, 방문으로 가능하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가집단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104건의 분쟁조정을 개시했고, 93건의 합의를 이끌어 내 조정률이 89.4%에 달했다.

강남대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상담사례집은 잘못된 상가임대차법 해석과 현행법을 벗어난 거래관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가임대차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서울 중구, 쓰레기 문제 푼다!

(주)천일에너지·화영산업과 폐목재 자원순환 업무협약 체결

2023년부터 중구에서 배출되는 연간 2천 톤의 폐목재가 고체연료로 재탄생한다.

중구는 지난 12월 9일 친환경 에너지 혁신기업 (주)천일에너지 및 자회사인 (주)화영산업과 폐목재 자원순환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 소각·매립 처리되던 폐목재를 고체연료로 전환한다는 게 협약의 골자다.

이를 통해 장롱이나 책상 등 대형 생활폐기물과 인쇄소에서 제지 운송에 쓰이는 폐파레트 등 폐목재가 에너지원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폐목재는 목재된 제작된 폐기물이나 자재가 사용기간을 다하고 폐기물이 된 상태를 말한다. 예전에는 소각이나 매립을 했지만 자원재활용이 중요시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재생되거나 재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목재는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만큼 현장에서 목재가 많이 사용된다. 또한 철거현장에서도 폐목재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는 가구나 소품으로 사용된 목재 제품에서 폐목재가 많이 나온다. 사업장에서 물품을 이동시키는 파레트도 손상이 되거나 파손이 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물로 배출된다.

공장이나 건설현장,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폐목재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지만 가구나 파레트 등은 대형 생활폐기물로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폐목재들은 마포자원회수시설이나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는 반입불가 폐기물로 민간업체에 의뢰해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형 생활폐기물은 구청이

나 청소대행업체에 신고하면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해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에 모은 후 폐목재 처리 대행업체로 보내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하는 물량만 약 2천톤에 달한다. 처리비용도 2천만원 가까이 되는 등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중구와 협약을 맺은 (주)천일에너지와 자회사인 (주)화영산업은 전국 최대 폐목재 처리업체로 폐목재 등 폐기물로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에너지 혁신기업이다.

포천(천일에너지)과 고양(화영산업)에 사업장이 있으며 수도권의 25%, 전국의 15%의 폐목재를 처리할 정도로 전국 최대 규모의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포천과 고양 외에 5개 공장이 경기도권에 소재해 포천·고양 사업장이 정비에 들어가도 다른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특히, 서소문에 있는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과 약 40km 거리로 원활한 수송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중구는 지금까지 매년 폐목재 처리 대행업체와 계약을 했으나 (주)화영산업과 5년간 장기 업무협약을 체결해 폐목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에 들어가는 약 2천만원의 폐목재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5년으로 환산하면 무려 1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금껏 그 어느 때보다 폐기물 감축에 대해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야 할 시기"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원순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올해 서초 10대 뉴스 1위, '나눔과 회복의 서리풀 음악회·바자회' 선정

1위 '서리풀 음악회·바자회', 2위 서울시 유일 11년 연속 대사중후군관리사업 최우수구, 3위 살롱 IN 양재천-‘양재역 말죽거리’ 연계 상권 활성화

서울 서초구는 올 한해 다양한 사업들 중 주민에게 가장 사랑 받고 서초구를 빛낸 '서초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10개 사업을 발표했다.

이 중 1위는 '나눔과 회복의 서리풀 음악회·바자회'가 뽑혔다. 구는 지난 9월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회복의 서리풀 음악회를 통해 문화를 통한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마련했다. 또 수해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나눔의 바자회로 수익금 5천만원을 수해로 특수하고 맛과 맛이 넘치는 등, 수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심신을 음악과 예술, 나눔으로 치유하고 함께 소통했다.

이번 서초 10대 뉴스는 온라인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선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구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수렴해 내년 주요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2위는 '서울시 유일 11년 연속 대사중후군관리사업 최우수구'가 차지했다. 구는 최고의 건강서비스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11년

연속 대사중후군 관리사업 우수구로 선정됐는데, 2010년 대사중후군관리센터 개소 이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특화사업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에는 모션센서 동작 인식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스마트미러를 서초구보건소에 이어 방배보건소에도 1곳을 추가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3위는 '살롱 IN 양재천-양재역 말죽거리 연계 상권 활성화'이다. '양재천길 상권'은 와인바, 카페 등 소규모 특색 있고 맛과 맛이 넘치는 가게들이 준비하여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거리다.

구는 말죽거리 상권과도 함께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살롱 IN 양재천'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을 향시 즐길 수 있는 고품격 골목상권', '클래식·재즈 등 음악이 흐르는 고품격 자연친화적 상권'을 만들 예정이다.

이어 ▲4위 10년 숙원 우면산터널 양방향 버스노선 4435번 최초 신설은 서초~우면 구간 약 40~50분 소요 시간을 10~15분으로 단축시켜 주민



생활권을 확대시켰으며, ▲5위 서리풀공원 무장애숲길 조성은 서리풀공원 일대에 평탄한 산책로를 마련해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심 속 숲길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6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찾는 법' 홍보 활성화 ▲7위 서울시 도시청결도 평가 '최우수구' 달성 ▲8위 전국 최초 'SMART 유스센터 개관' ▲9위 '청담고 잠원 지역 이전, 착공 가시화' ▲10위 '서초, 스마트 인증도시로 선정'이 각각 뒤를 이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올 한해 서초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서초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에 귀 기울여 구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서대문구, 전통시장체험주간 '수고했어 올해도!' 개최

영천시장 '코리안 타파스 영천21, 포방터시장 '밀키트 브랜드 출시 이벤트' 등

서대문구가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수고했어 올해도!'란 슬로건 아래 '전통시장 체험주간'을 운영한다.

영천시장에서는 21개 점포가 참여하는 '코리안 타파스 영천21'이 열려 파매기, 떡갈비, 편육, 모듬전 등 시장 대표 음식과 과메기, 석화 등 제철 음식을 만날 수 있다.

직장인들이 음식을 즐긴 후 영천 휴게소에 비치된 함에 명함을 넣으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또한 누구나 음식 사진 등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역시 추첨해 헤어드라이기 등의 연말 선물을 제공한다.

영천시장 두레박 건물 4층 공유주방에서는 '코리안타파스 영천21×전통주 페어링 클래스'가 열린다. 전통주 소믈리에 민준호가 진행하는 '우

리 술에 관한 인문학 강의'를 듣고 영천시장 대표음식과 어울리는 전통주를 체험할 수 있다.

포방터시장에서는 자체 밀키트(바로 요리 세트) 브랜드인 '포유포밀'(for you for meal)을 출시한다.

시장 입구에 설치된 무인자판기에서 5가지 제품(어머니와 아들 닭볶음탕, 포방터짜꾸미, 착한코다리, 왕자떡볶이, 소불고기)을 24시간 구매할 수 있다. 제품 구입 후 조리 완료된 사진과 후기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이 밖에도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5천 원)을 제공하는 '릴레이 경품행사'가 백련시장(21~22일), 인왕시장(22일), 홍제골목형상점가(22~23일), 유신시장(26일), 포방터시장(28일), 영천시장(29~30일)에서 잇달아 열린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연말 전통시장 체험 행사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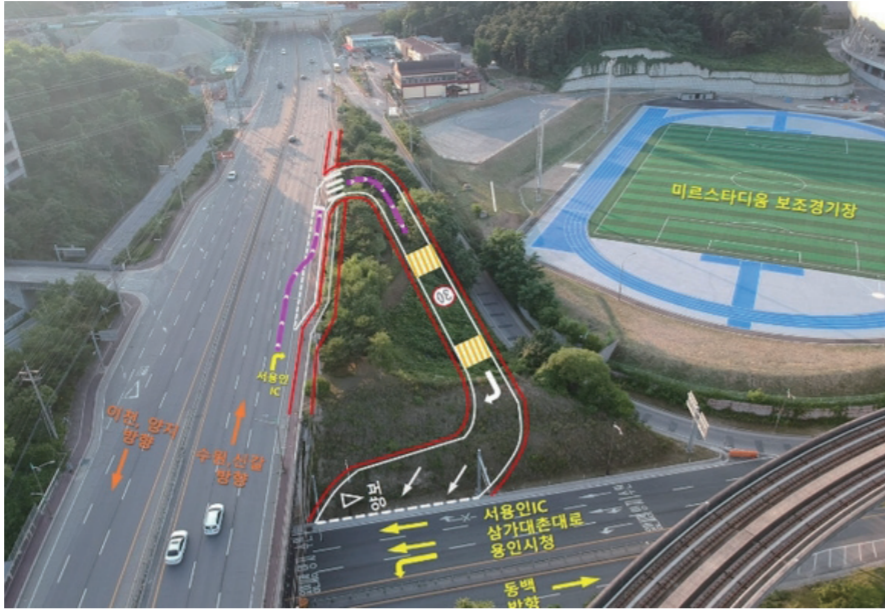
최만식/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내년 1129억원 들여 교통인프라 확 바꾼다

75개 노선 도로개설·서용인IC P턴 진입로 등 교통체계 개선

용인특례시 처인구 교통인프라가 더 편리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구도심의 낙후된 도로·교통 기반을 확충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틀을 만들려는 취지에서다.

처인구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 도로개설과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1129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가 중부대로 삼가동에서 서용인IC로 연결되는 P턴 진입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는 18개 노선 도로개설사업비 541억원을 차지하더라도 구 소관의 도로·교통 분야 예산만 전년 대비 약 220억원(59.7%) 늘어난 588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75개 노선 도로 개설행업에 시비와 구비를 포함한 1075억원이 들어간다.

원삼면 두창리에서 가재울리(국도 17호선)를 잇는 길이 1.9km의 보개원삼로 확포장공사엔 올해 80억원을 투입,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소부장 협력 기업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기업간 물류 이동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시민의 교통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광주고속도로 포곡IC 인근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연계 도로도 2024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확충한다.

마성교차로에서 포곡IC까지 이어지는 중1-45호선에 50억원을 투입, 2.24km 구간의 양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한다.

또 포곡IC에서 국도 45호선으로 이어지는 길이 200m 양복 6차로의 연결도로를 신설한다. 이 노선엔 경안천을 횡단하기 위한 125m의 교량도 들어선다. 이 공사엔 61억원이 투입된다.

비포장도로로 불편을 겪어왔던 마평동 용마초등학교엔 9억원을, 남사읍 남곡초등학교 일원엔 12억원을 투입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한다.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선 상습 정체 구간 정비에 54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중부대로 삼가역에서 효자교

개 사이 구간에서 서용인IC와 신중부대로로 편리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P턴 진입로를 조성한다.

지금은 중부대로에서 서용인IC로 진출하려면 효자교개에서 유턴해 맞은편 출구를 이용하거나 미르스타디움을 우회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구는 미르스타디움 옆 가용부지에 길이 110m 구간의 P턴 진입로를 조성하는 공사에 4억6000만원을 투입, 내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또 백옥대로 이동을 덕성리에서 천리 방향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천리 방향 편도 1차로를 2개 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에 15억원을 들인다. 내년 6월 완공할 계획이다.

남사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병목현상을 빚어온 용인대 입구 삼거리엔 내년

3월부터 가변차로를 운영한다.

양복 4차로 가운데 3차로 300m 구간을 가변차로로 사용, 출근 시간(오전 5시~12시)엔 용인대 방향 오르막 차량이 통행하도록 하고 퇴근 시간은 기존대로 용인대 입구 삼거리 방향 내리막 차량의 좌회전 차로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구는 운전자들이 가변차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60~80m마다 가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올해 마평교차로(1차로→2차로)와 마성교차로(2차로→3차로)의 교통체계 개선 공사로 이 구간 통행량이 65~80% 늘어나는 등 원활한 소통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시 교통정책과에서도 유림1교차로와 삼계삼거리의 교통섬을 정비해 원활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고 좌회전 차가 없어 불편을 겪던 남사읍 대성주유소 삼거리에 길이 50m의 좌회전 대기 차로를 신설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용인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처인구 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대대적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의 역사를 이어온 처인구는 앞으로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며 “장기적으로 국지도 57호선 연결 확장 등 경강선 연장 등 철도 도로망을 확충하고 단기간에 지체 없이 교통체계의 개선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안산시는 21일 '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과 공유회'를 열어 지난 4년 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간·학협의 장을 개최했다.

이날 엠블던 호텔 루시아홀에서 열린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위원들과 제공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통합돌봄 유공자 표창 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성과보고 ▲우수사례발표(부곡종합사회복지관·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계획수립 기본방향 연구 최종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90여개 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촘촘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재택의료센터 운영 ▲방문주치의 사업 ▲맞춤 영양서비스 ▲방문가사서비스 등 모두 27종에 달하는 어르신 노후 맞춤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는 올해 복지부에서 주최한 '2022년 지역사회복지사업 평가' 최우수 수상, 행안부에서 주관한 '정부혁신 행정제도 개선분야'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일본 복지대학교 등 국내외 기관 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등 새로운 통합돌봄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소은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머물러 살 수 있도록 안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안성시, '12월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의 날' 맞아 점검활동 나서



안성시는 지난 20일 '12월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 안성시노인복지관에 대해 안성소방서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안성시노인복지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둘 이상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그간 시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해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현장점검은 소방, 건축, 전기 등 분야별로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재해 유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해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며 중대시민재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기본적인 업무 및 역할을 숙지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안산시,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지난해 산자부 장관상에 이어 2년 연속 일자리 사업 장관상 영예

안산시는 행정안전부,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구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와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탁월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우수 일자리 창출 사례를 선보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안산시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어르신을 위한 공공일

자리 창출 ▲AI 화상면접 체험관 ▲행복마을관리소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청년상인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년큐브'를 통해 지난 해 52개사에서 154명을 고용해 3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5천85명의 참여를 이끌어 내 목표량 대비 112%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안산시는 지난 해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우수한 일자리 정책들로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고양시 "세입예산 감소원인은 국·도비 등 외부요인 비중 크다"

고양특례시는 21일 “새해 세입예산 감소가 집행부의 세입 과소추계가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새해 세입예산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추가경정예산, 국·도비 등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의 경우 오히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150억 원, 법인세 추계를 반영한 지방소득세 250억 원 등 지방세수입 과목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시가 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산 과목인 세외수입의 경우 361억 원이 감액됐는데, 2022년 한시적 수입이었던 삼송 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280억 원 등 일시적인 수입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가 통제할 수 없는 이전재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국세 일부를 지자체가 나눠 갖는 방식의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84억 원 증액된 반면, 경기도가 도세의 일부를 시군에 분배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 460억 원 감액됐다.

도의 편성 기준액을 반영한 것으로, 도세의 대부분이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절벽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전년도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세입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 건정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국도비 보조금 또한 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국고보조금은 영아수당 확대 지급 등 정부시책에 따라 전년 대비 859억 원 늘어난 반면, 도비보조금은 경기도 내시책 기준으로 전년 대비 76억 원이 줄어든 2,134억 원 규모로 예산안에 담겼다.

시는 올해 두 번의 추경예산 편성을 단행했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 마찬가지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현실화로 인한 증액분 720억 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경에 의존한다.

특히, 용도가 지정돼 있는 국도비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102억 원 늘어났는데, 이는 추경예산 증액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시 재원을 의무 매칭해야 부담까지 안고 있어 재정건정성과 재정자립도를 끌어 내리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원별 규모 특성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추계를 통해 조정하는 부분은 전체 예산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추경예산 증액 또한 정부, 경기도 등 외부요인에 의존하고 있어 집행부가 지나치게 세입을 적게 편성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면서도 “시가 자체적으로 통제가능한 부분은 보다 더 정확

한 추계를 통해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정밀성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인천시,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인천광역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양육 지원, 근무 환경 개선,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서류 심사, 직원만족도 설문조사, 현장 심사, 최종 인증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인천시는 2014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최초 선정된 후 연장에 이어 올해 재인증을 획득했으며, 2025년까지 3년간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한다.

시는 주 2회,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권장하고, 장기근속 휴가 지원, 출산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족휴양 시설 및 휴양지원금 제공,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 마음건강 지원'상당 제도 운영, 힐링캠프 운영, 헬스킴피 및 부속하의원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

으로 운영하는 관내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22년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했다.

이런 노력으로 ㈜다담푸드, ㈜이엘바이오 등 51개사의 신규 인증과 42개사의 연장·재인증 획득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이 지난해 총 187개사에서 215개사로 증가하는 성과도 이뤘다.

한명숙 시 가족다문화과장은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인천시 관내 기업 및 기관에도 가족친화제도를 정착 및 기업 가정 생활의 균형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더 안전한 수원특례시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21일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및

지역치안협의회...내년

추진방향 공유

수원특례시와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들이 수원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안전문화운동의 성과를 돌아보며 2023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원시는 21일 오후 3시 수원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2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및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3개 경찰서와 소방서 등 공공기관 대표와 안전관련 단체 대표, 시민단체와 민간부문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수원시의 2022년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 보고한 뒤 2023년 안전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올해 수원시 안전문화운동은 신고와 교육, 점검이 균형을 이뤄 시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성과를 창출하도록 추진됐다.

먼저 '안전신고' 분야는 CCTV 통합관제 상황실을 운영해 수원시내 4261개소에서 1만3358대의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원시방범기동순찰대가 248일간 1299명이 야간 순찰에 동참했다.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과 초·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지원도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으로 4538명의 시민이 교육을 받았고, 수원 안전학교 운영으로 학교 시설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안전교육 운영을 지원했다. 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온라인 수원시민안전체험한마당 등을 운영

했다. '안전점검' 분야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84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계절과 시

기에 맞춰 실시하는 한편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영화동 보이는 소화기함 소화기 교체 등 수원시내 8개 안전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호매실동 등 6개소에 안심귀갓길을 조성했다. 장안구 밤밭청개구리공원 등 3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도 진행했다.

수원시는 내년도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방향으로 체력 위주의 안전교육 활성화로 시민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민간단체와 협업을 추진하고, 시민 안전과 보건을 우선하는 스마트도시로 나아가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가 이어져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치안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우리 사회의 안전척도를 재점검하고 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안전에 관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더 안전한 도시로 가꿀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화성시,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 토론회 열어

21일, 봉담읍행정복지센터에서 토론회 개최



화성시가 권철승 국회의원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과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이달 초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김에 따라 정부의 정책 마련에 힘을 실겠다는 취지이다.

21일 봉담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정명준 화성시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회로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박영수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교수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법무부의 행정절차와 법의 허점을 꼬집으며, 재범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연수 동국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민경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제스카법, 셉터드(CPTED) 설치사례를 들며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주거지를 의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강력 성범죄자의 출소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이고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재범을 막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EBS 교육진단'출연...교육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모색

박승원 광명시장은 EBS '교육진단'에 2회 연속 출연해 교육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로 가는 길을 모색한다.

22일, 29일 오후 12시 10분부터 방송되는 EBS '교육진단' 17회, 18회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 박승원)와 EBS 교육 방송이 협력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가야 할 길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22일 방영되는 17회에서는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미경MKYU(MK&You University)김미경과 당신의 대학)대표와 함께 패널로 출연해 '교육의 미래, 평생학습사회로 가는 길'을 주제로 논의한다.

29일 방영되는 18회에서는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과 어재영 진천군 평생학습센터 전문경력관과 패널로 출연해 '교육의 미래, ESG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주제로 ESG 관점의 필요성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방송에서 "이제는 공존을 위한 학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환경, 구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온 국민



평생학습 수당을 통해 누구나 소외됨 없이 학습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SG학습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ESG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학습의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1999년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누구나 소외 없이 배우고

누리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 있다. 시는 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학습 수당을 준비하고 있으며, 광명자치대학·느슨한학교·시민교육 등 시민을 위해 다양한 ESG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강화군, 화려한 맛의 향연 '제10회 강화 최고의 맛 미식대전' 개최



강화군은 21일 "제10회 강화 최고의 맛 미식대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원호 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박용철 시의원, 박승한 군의회장 및 군의원을 비롯한 외식업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팀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번 경연대회 대상 수상은 영광은 강화도맛집의 '강화'를 품은 손두부 만두전골'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에는 김나루 풍천장어의 '갯벌장어구이', 강문도의 '사자발약썩 가스파초&섬쌀 리스크'이 수상했다.

부대행사도 다채로웠다. 지난 대회 대상 수상작인 '왕창 잘되는 집'의 '밴댕이 7형제 세트'를 비롯해, 역대 대회 수상작으로 품평회를 운영했다.

또한, 관내 4대 특색음식거리(▲터리미 장어마을, ▲외포리 꽃게마을, ▲선수 밴댕이마을, ▲별밤거리)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시식 코너를 운영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자랑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향토음식의 최고의 맛을 발굴해 먹거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시흥시, 국토부 주관 '주거복지대상'서 우수지자체 2년 연속 선정

시흥시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제2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흥형 주거복지 사업' 추진 노력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장관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주거복지대상'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우수사례와 제도, 추진실적을 평가해 주거복지 분야에 기여하며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우수지자체를 시상하는 제도다. 시흥시는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올해 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2년 연속 전국 10개 우수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지난 21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제18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에서 시흥시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NGO 등 주거복지 서비스 관계자 및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시흥형 주거복지 추진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흥시는 지난 2013년 주거복지 기



본조례의 선도적 제정으로 '시흥형 집수리지원사업'과 '시흥형 주거복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차지원사업' 등 지역 맞춤형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자체재원을 확보해 국가지원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6%)보다 대상자를 확대(중위소득 80%)해

아동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시흥형 아동주거복지지원사업'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시는 지난 3월 시흥시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면서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주거취약계층 주거생활지원사업' 등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흥형주거복지사업' 활

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주거복지분야 선도 지자체답게 시흥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우용/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어린이 보호는 안전한 먹거리부터'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초·중·고등학교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 이내 및 학원가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관리하며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상 및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일산서구는 총 50개교의 학교를 중심으로 24개의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도점검반은 담당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활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반을 대상으로 위생 및 지도·점검 교육을 분기별 1회씩 진행하고 있다.

매달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186개소(11월 기준)를 대상으로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특정일 대비(동계학기 방학, 어린이날 등) 지도점검, 배달업 영양성분 및 알레르

기 유발식품 표시 모니터링,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표시 지도점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수칙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돈·화투·담배 형태) 및 부정·불량식품 제한 ▲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판매 제한품목 홍보 ▲식품접객업소 위생마스크, 앞치마 착용 실천 유도 ▲식중독 예방수칙 등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내년 또한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안전한 식품 구매환경 조성 및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더욱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혁신의 오스카, '2022 대구 스타트업 어워즈' 개최

-올해의 혁신 기술 보유 스타트업 4개사, 창업유공자 2명 시상
-매년 창업성과 공유 및 결집으로 대구 대표 기업 성장 견인
*17년부터 시상, 예비유니콘 2개 사, 아기유니콘 2개 사 등 배출

대구시는 지난 22일(목),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해동안 창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혁신 스타트업을 시상하는 '2022 대구 스타트업 어워즈'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차를 맞는 '대구 스타트업 어워즈'는 한 해의 창업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혁신 스타트업과 창업유공자 시상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일 뿐만 아니라 지역 창업자들의 모험과 도전 정신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네트워킹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선정된 수상자 총 6명(스타트업 4, 유공자 2)에 대한 시상에는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이재경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트로피와 축하 꽃다발을 전하였다.

올해의 우수 스타트업 대상에는 큐어스트림(큐)이 선정됐다. 당노로 대표되는 만성질환으로 소실된 기능들을 복원하는 미래형 메디컬 솔루션 연구 개발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인슐린 제어 알고리즘과 모듈형 인슐린 펌프 원천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기술로 미래형 인공췌장 시스템의 사업화에 기여했다.



지난 2017년도 행사를 시작으로 '대구 스타트업 어워즈'는 그동안 혁신 스타트업 24개사 및 창업유공자 12명을 발굴 시상했으며, 수상 기업들 중 예비유니콘, 아기유니콘 선정 등 대구를 대표할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창업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지역 창업가들의 도전이 계속 이어지기를 응원한다"며, "지역의 다양한 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향후 스타트업 지원 및 협력을 폭넓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여성행복드림센터 21일 개관 지역 여성 모두가 행복한 공간 조성



경주시는 지난 21일 지역 여성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경주시여성행복드림센터가 개관했다.

여성행복드림센터는 여성일자리 참여와 공동육아 및 돌봄체계 마련으로 실질적인 여성친화 도시를 구현기 위해 경주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용강동 일원에 28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1086㎡,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했다.

여성행복드림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 ▲생활문화센터 ▲장난감도서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정보화교육장과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구비해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 여성들의 구직활동과 사회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또 생활문화센터는 북카페, 스테디룸, 동아리방, 마루공간, 음악실 등을 갖춰 지역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통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관심이 모

아진다.

이날 개관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철우 경주시의장을 비롯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및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여성친화도시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여성행복드림센터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이철우 경주시의장은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키우는 일이 경주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앞으로 경주시여성행복드림센터가 지역 여성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열며, 함께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여성행복드림센터 개관이 온(溫, All)가족 행복도시 경주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각 시설별 내실 있는 프로그램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지역 여성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센터에서 일상 속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경북도,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위해 총력

- 22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 혁신을 위한 포럼」 개최
-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경북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방향 제시

경상북도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차전지 산학연관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병욱, 김정재, 한무경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지산업협회, SNE리서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경북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 혁신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인선, 구자근 양금희 국회의원, 이용필 산업부 소제융합산업정책관, 김병훈 에코프로 대표, 정준희 우전지엔에프 부사장 등 중앙·지방정부와 정관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차전지는 '탈 탄소화'라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기차 확산 등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배터리규정 등을 통해 자국 중심의 이

차전지 생산 가치사슬 내재화로 국내 기업의 공급망 위기, 기술경쟁 등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건설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학연관 이차전지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제발표에서는 산업부 이차전지 PD를 역임한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첨단 전략산업으로써 이차전지 분야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국내외 전기차/이차전지 소재산업 비전과 과제를 발표하여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으며, 이어 토론에서는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를 좌장으로, 이용필 산업부 소제융합산업정책관, 박석준 에코프로CNG 대표, 박규영 포스텍

철강에너지 대학원 교수, 이주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지원본부장, 이영주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장이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난해 7월 K-배터리 발전 전략, 지난달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 하며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고, 이 포럼은 중앙정부 정책흐름에 맞춰 지역 차원에서 국내 이차전지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경북도는 이차전지 원료·소재 확보에 용이한 영일만신항을 보유한 포항의 지리적 강점, 4조1697억원(MOU기준) 규모의 투자유치 및 이



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부각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제는 지방시대다. 중앙정부는 지방과 함께 대외 리스크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포항으로 지정되면 혁신 생태계 구축과 균형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며 "도는 포항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혁신허브를 구축해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차전지 글로벌 최강국으로 만들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덕대게축제, 강풍으로 인한 안전 고려 온라인축제로 진행

강풍 예보에 따른 안전조치로, 로블록스·깜짝경매 등 온라인 주력

영덕군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강구항 해파랑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던 제25회 영덕대게축제의 오프라인 축제를 기상 악화로 인해 취소하고 온라인축제는 유지하기로 긴급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1일 오전 기준, 개막식 당일인 23일에 순간 최대풍속 27%의 강풍이 예보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내려진 조치다.

이에 강구항 해파랑원에서 열리는 영덕대게축제의 오프라인 축제 프로그램인 기원제, 퍼레이드, 개막식, 먹거리파티존, 특산물판매장, 플리마켓 등은 모두 취소된다.

다만, 작년 진행된 온라인 영덕대게

축제가 경상북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메타버스 우수축제로 지정받았던 만큼 이번 오프라인 축제가 취소된 것과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진행될 다채로운 이벤트와 프로그램들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영덕대게축제에는 예능형 라이브커머스로 진행되는 '위대한국쇼'의 쿡방&먹방과 영덕대게 깜짝경매가 펼쳐지는 '어서옵션' 프로그램을 통해 고품질의 영덕대게를 만날 수 있으며, 대게줄다리기, 대게인형탈 축구대회, 홈쇼핑 '대게좋은밤', 인기BJ 라이브 체험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유튜브와 아프리카TV로 펼쳐진다.



이박에 오는 31일 자정에는 경북대중 타종식과 신년 카운트다운이, 신년 1일에는 해맞이행사가 메타버스축제로 진행돼 색다른 온라인 체험을 선사하게 된다.

온라인 영덕대게축제는 영덕대게축제 홈페이지(<http://crab.ydfesta.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장문화/기자

2022년 대구시 구·군 안전시책 평가 최우수 선정

대구 동구청이 대구시에서 실시한 구·군 안전시책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고 우수 안전시책 발굴과 공유 및 관계 공무원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5개 분야 23개 지표를 평가하였다.

동구청은 생활밀착형 안전시책에 역점을 두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계절별, 테마별 안전문화 캠페인 매월 실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안전데마파크 현장체험 교육 재개, 산악사

고대비 초래산 등산로 비상구급함 정비 등을 추진하여 시민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노력한 점을 인정 받았다.

2019년도에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던 동구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안전시책 평가가 재개된 첫 번째 평가에서도 최우수로 선정되어 재난안전관리 능력을 공인 받은 셈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자만하지 않고 새로운 안전시책을 발굴하여 구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통영 동백, 세계로 뻗어나가는 까멜리아

통영시의 특산품인 동백오일 10.5톤이 지난 21일, (주)한국동백연구소(대표 박원표)에서 프랑스 수출길에 올랐다. 동백오일의 프랑스 수출은 2013년 시작, 올해로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2022년에는 45만불의 수출실적이 예상된다. 프랑스로 수출되는 동백오일은 유럽 유명 화장품의 까멜리아 라인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출물량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1997년 설립된 (주)한국동백연구소에서는 매년 전국 최대 규모의 동백 씨앗 수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2022년에도 12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27톤의 수매량을 기록하였다. 좋은 품질의 씨앗으로만 골라 비화학적 정제기술로 생산하는 동백오일은 통영

을 대표하는 동백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 해마다 많은 원료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동백오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는 박원표 대표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사)대한민국영인회 '동백연구' 부분 대한명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통영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동백오일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 자랑스럽다. 동백오일의 판매·수출량 증대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품질 좋은 통영산 동백씨앗 수매량 확보를 위해 동백 군락지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용준/기자



영양군별빛아카데미 개최

“영양 관광, 가치를 창조해야 미래가 있다!”

영양군은 지난 12월 21일(수), 영양군청대의실에서 강신겸 교수를 초청해 '12월 영양군별빛아카데미' 강연을 개최했다.

이 날 강연은 '관광으로 열어나가는 지역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강신겸 교수는 '주민참여, 지역문화, 인재육성 등 지역발전 전략에 걸쳐 통합적이고 창조적인 전략을 추구 하고, 차별화된 관광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역만이 관광객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관광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직원이다수 함께해, 참가자로부터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 L모씨는 “오늘 강연이 영양군의 관광사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계속될 '영양군별빛아카데미' 강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 강연을 계



기로 자작나무숲, 장계향 음식디미방 등 다양한 영양군의 관광컨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영양군 관광 활성화의 새 물꼬를 틀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양별빛아카데미는 군민들에

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2년 시작해 3회째 개최됐으며, 2023년 이후 연중 6회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국립해양과학관 윤리인권경영 페스티벌 개최



국립해양과학관은 지난 21일(수), 윤리인권경영 페스티벌을 개최 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공공기관으로써 청렴하고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과학관임을 대·내외로 알리기 위해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 윤리인권경영 경과 보고, ▲ 청렴퀴즈대회, ▲ 윤리인권경영 포어 공모 우수작 선정 등이다. 서장우 관장은 “청렴하고 직원 서

로 뿐만 아니라 방문객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마음에서 윤리인권경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며, “국립해양과학관이 전국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인권경영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0년 개관 후 3년 차에 접어든 국립해양과학관은 반부패 활동과 인권경영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직원과 관계업체를 대상으로 윤리인권경영 포어를 공모하여 최우수작 1개, 우수작 2개를 선정하여 윤리인권

경영 의지를 대·내외로 홍보할 계획 이다.

한편, 국립해양과학관은 해양수산물 산하기관으로 해양과학 자료의 수집·보존·전시·교육하기 위해 경북 울진군에 설립된 기관이며, 전국 최장급의 바다마중단, 바다속 전망대, 기타 해양과학 전시를 하고 있다. 국립해양과학관 입장은 무료이며, 가족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전시물들을 체험할 수 있다.

장문화/기자

부산시, 좋은 이웃과 소통하는 「하하호호 맛실 행사」 개최

15분 생활권 도시를 위한 소소한 행복 찾기

부산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일원에서 15분 도시 생활권 내 주민 간 만남과 연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하하호호 맛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 공동체와 주민이 협력하여 공동체 문화의 확산 및 상호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거리 제즈 공연을 시작으로 ▲마을 동아리 소개 및 지역 예술 동아리 공연, ▲마실 문화 체험, ▲VR, 종이접기 등 체험 활동 ▲지역 소상공인 참여 홍보 코너 등 지역주민 100여 명이 함께 동지를 맞이하여 따뜻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마실 문화체험'은 언제든지 동네에서 간편한 복장으로 나가서 문화를 즐기고 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추운 날씨이지만 집에서 나와 주민들끼리 따뜻한 차를 마시고 대화하며 공연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동네에서 활동하는 마을 동아리 중심으로 활동 소개 및 자체 공연을 선보이며, 이웃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도 체험할 수 있어 마을 공동체와 주민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 시는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 향후 다양한 시도로 공동체의 화합과 교류를 유도하는 행사를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



다. 김광희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이번 행사가 이웃 간 벽을 허물고 정을 나누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 간 화합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속가

능한 마을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15분 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 15분 도시 시범사업 지역인 당감·개금원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주민 참여 범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을 활용한 마을 문화행사인 「하하호호 콘서트」를 총 3회 개최하여 큰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송준진/기자

청송군,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선도적 역할

청송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공개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로 나누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했다.

청송군은 군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사전정보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정보공개 청구처리 절차의 적절성, 고객 수요 분석 및 만족도에서도 최고 점수를 획득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생산한 정보를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원문 그대로를 공개하는 원문공개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는 등 전 분야에



서 고르게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청송군은 2019년 최초 실시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최근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정보공개제도 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행정을 운영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청송군은 군민들이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겨울 죽변항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수산물의 보고(寶庫)
- 죽변항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12월 24~25일 죽변항 수산물축제

한때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항구가 있었다. 자연의 축복을 받아 각종 어종이 풍부했고, 그 덕분에 사람이 드나들고 물자가 오가며 이름을 떨쳤다. 포항 구룡포항, 경주 감포항과 함께 동해 남부의 중심 어항 역할을 했던 울진 죽변항 이야기다.

내년이면 개항 100주년을 맞아, 죽변항은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동해의 거친 바다를 담은 투박함 속에 부드러운 매력의 숨어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죽변항으로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 죽변항의 옛 이야기
지난 2010년 죽변면 죽변리에서 유물이 발견됐다. 초기 신석기 시대(기원전 6000년경)에 낚싯배로 쓰인 목재 선박과 노 등이었는데, 당시 이 일대에 사람들이 있었고 어업 생활상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민 이후 정착으로 일본인들이 죽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후 어항의 모습을 갖추고 출어가 합법화되고, 항구의 기반이 되는 등대가 세워졌다.

이처럼 사람들은 고대부터 오랫동안 죽변항 주변에 터를 잡고 바다와

함께 살아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살기 좋은 자연환경이 큰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죽변지역은 해류의 영향으로 사계절 비교적 온난한 편이다. 이로 인해 좋은 어장이 형성될 수 있었고, 예로부터 수산물이 풍부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연어, 자해(대게), 문어, 대구, 방어 등이 울진의 토산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80년대까지, 죽변항은 각기 다른 어종으로 번성기를 누렸다. 1930년대엔 정어리가, 50-60년대엔 명태, 70-80년대엔 오징어가 있었다. 이 지역 말로 '개각' 날 정도로 어획량이 많았다.

주인들은 거친 동해바다를 누비며 만선의 기쁨을 만끽했고, 가공공장들도 많이 들어서 죽변항의 전성시대가 이어졌다. '강아지도 지전을 물고 다닌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으니 말이다.

에서 즐길 수 있는 수산복합공간과 죽변항 이용과 도화 사업 등 수산업과 문화, 관광, 산업 기능을 겸비한 다목적 어항으로의 개발을 준비 중이다. 명실상부 동해안 어업전진기지의 변신이 기대된다.

▲ 지역 대표 겨울 축제를 꿈꾸다, 죽변항 수산물축제
기후가 변하면서 바다 생태계도 많이 달라졌다. 그래도 죽변항은 여전히 사시사철 다양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수산자원의 보고(寶庫)이다. 특히, 겨울바다는 어느 계절보다 수산물이 풍성해 생동감이 넘친다. 이 생생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시작된 것이 바로 '죽변항 수산물축제'이다.

코로나19로 올해 두 번째로 열리게 될 2022 울진 죽변항 수산물축제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죽변항 일대에서 진행된다. 겨울 대표 전미인 울진대게와 붉은대게부터 방어, 문어, 대구, 가지미, 곰치, 도루묵, 홍새우 등 남녀노소 누구



나 좋아할 수산물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수산물축제답게 수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먼저, 전문 셰프가 겨울 최고의 횡감으로 불리는 대방어를 부위별로 손질해 맛볼 수 있는 '대방어 해체쇼'와 고품질의 수산물을 감쪽 경매로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죽변항을 바다에서 감상하는 요트 승선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 중이다. 성탄절 연휴에 열리는 만큼 크리스마스 포토존과 대형트리 등과 함께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쌓을 수도 있다.

이번 축제를 200%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죽변항 위판장 투어다. 기상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게 경매와 수산물 경매가 매일 아침 진행된다. 선홍빛 대게는 보기만 해도 동해

의 생명력이 느껴지고, 위판장에 늘어난 다양한 수산물은 죽변항이 수산물의 천국임을 실감케 한다.

경매가 끝난 뒤 일부 상인들은 현장에서 수산물을 팔기도 한다. 갓 잡아 온 신선한 수산물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단골처럼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구입한 수산물은 그 맛이 다르다. 이처럼, 동해안의 진한 바다 맛을 느끼고 싶다면, 죽변항 위판장 투어를 찾아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다.

▲ 볼수록 매력적인 죽변항 여행
죽변항은 볼수록 빠져드는 시냇말로 '볼매'(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다는 뜻)의 항구이다. 그래서 한 번 여행하고 나면 자꾸 생각나서 두 번, 세 번 방문한다는 여행자들이 많다. 최근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죽변해안스카이라인은 죽변항 여행의 필수 코스이며, 죽변해안스카이라일 운행코스인 죽변곶을 걸어서 돌아보는 것도 추천한다.

죽변해안스카이라일 승강장 끝과 죽변 하트해변을 잇는 이 길은 '용의 꿈길'이라 불리는 산책로인데, 해안 절벽을 따라 숲 사이로 걷는 것이 특징이다. 찾는 이들이 많지 않아 비교적 여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용의 꿈길은 걷는 중간 중간 미로처럼 숨겨진 장소들이 있다. 때론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 때론 포토존으로 활용해보길 추천한다. 그곳에 내려서면 깎아지른 절벽과 질푸른 바다의 위엄 앞에 잠시 멈춰서게 되지만, 이내 동해의 너른 바다에 포근하게 안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산책길 중간에 있는 죽변등대와 공원도 꼭 둘러보자. 경상북도 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된 죽변등대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뱃사람들의 길잡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다. 등대 맞은 편에는 동네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공원이 있는데 독도 최단거리 표지석이 있다. 죽변면 죽변리와 독도 사이 거리가 216.8km로 이곳이 독도와 가장 가까운 땅이라는 의미이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도 보인다고 하니, 또 한 번 와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특히, 이 공원은 죽변항 일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 죽변항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인다. 일출 명소이자 일몰 명소로 알려져 있어, 이곳에서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해 보자. 이와같이 바다는 계절마다 색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시리도록 푸른 겨울 바다는 바다를 싫어하는 사람도 한 번에 그 매력을 빠지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어디 한번 죽변항이 풍기는 아름다운 볼매에 한번 빠져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울진군청기초문투근미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주관 각종 상 휩쓸다

-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상 등 4개 수상...포상금만 770만원
- 농촌지도분야 전국 최고 인증...미래지향 부자농촌 건설 목표

영주시농업기술센터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 주관 각종 평가에서 잇따라 표창을 받으며 농촌지도분야 전국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영주시는 올해 미래지향 부자농촌 건설을 목표로 농업분야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촌진흥청 주관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상, 청년농업인 육성 경진 최우수상, 농촌자원사업 경진 우수상 ▶경북도농업기술원 주관 농촌진흥사업 선정 우수팀(농촌지도과 생활기술팀) 선정 등 4개 분야 수상과 함께 77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시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인 기술보급사업과 농업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유용미생물 공급 및 조직배양 무병묘 공급 등으로 과학영농기술 확대 보급에 힘써왔다. 또한 농업인대학(사과밀식, 유기농업), 애플스쿨 등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교육 성과와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기간 경상북도 정보화농업인회, 4-H회, 농촌지도자회 등 경북도 단위 농업인학습단체 대회 3개를 유치하는 등 중앙·지방협업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

다. 특히 시는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농촌진흥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를 평가하는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농촌자원 가치 극대화와 활기찬 농촌 실현 기여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전국 시도 1차 심사에서 선발된 10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발표 심사로 선정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경진대회와 농촌자원분야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시는 청년농업인 성공 정착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목표로 생력화장비지원, 농업작업장 조성사업 등 농업기반 조성과 영농봉사활동, 야영대회 등 4-H회 육성을 통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에 주력해 높은 평가를

윤근수기자

남해군, 문체부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남해마을살아보기 '오시다 남해군' 주제로 국비 1억 확보
- 올 한해 관광분야 5개 공모사업 선정 공모사업에 천재군 면모 과시해

남해군은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년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원 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남해군을 비롯한 5개 지자체(나주, 군산, 영동, 예산)가 선정되었으며 경남도에서는 남해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은 최근 한 달 살기와 같이 일상생활과 새로운 경험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지역다움'을 체험하고 현지인들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고 현지인들처럼 살아가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3년 사업성과에 따라 2025년까지 계속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남해군은 남해관광문화재단과 함께 '남해마을 살아보기 오시다 남해군'이라는 주제로 참여했다. 남해읍을 중심으로 설천면과 미조면, 바래길 탐방센터를 활용해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일 이상 체류(숙박)하면서 남해 현지인들의 숨은 명소, 맛집, 숙박, 카페 등 관내 관광 사업체를 두루 즐기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중구 관광진흥과장은 "최신 관광 트렌드에 대응해 체류형 관광객 증대와 주민 주도의 관광상품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이번사업을 포함하여 올 한해 관광분야에서 5개 공모사

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첨단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준기자

「안동·예천 상생발전 전략 주민토론회」 개최



안동시는 지난 21일(수),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안동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안동·예천 상생발전 전략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북도청 이전으로 형성된 신도시의 주민들이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지속적인 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더불어 안동과 예천이 상생 발전하기 위한 미래를 주민이 직접 구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장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날 ▶권기창 안동시장은 양 자치단체의 상생발전 방안인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김정호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 ▶김광홍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장, ▶권중근 예천·안동행정구역통합 신도시추진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정호 경북대학교 교수는 군위의 대구 편입으로 선거구 개편 시점에 예천이 군위대신 포함될 가능성,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는 자치단체 통합은 대구경북권 큰 틀에서 균형발

전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광홍 청주청원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청주시의 시너지 효과와 공용하고, 권중근 예천·안동 행정구역통합신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도청 주민으로서 느끼는 행정 이원화로 인한 불편사항을 들여 경북도, 안동, 예천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도청 이전은 23개 시·군이 다 함께 잘사는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성장 거점 도시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도하는 전원형 생태도시, 경북의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첨단명품 행정도시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었다."라며, "이로 인해 도청 신도시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 중심도시, 경북 북부지역 성장의 허브 기능과 교량적 역할 수행, 사통팔달 교통망 중심지 역할을 하며, 경북은 포항과 구미 중심의 한일자형 발전 축에서 벗어나 안동과 예천을 중심으로 한 삼각 발전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은 도청 신도시가 안동과 예천의 이원화된 행정구역에 걸쳐 있음으로 도시건설에서부터 행정 운

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신도시 인구는 대부분 안동과 예천 인구조외 외부 유입에 실패하였고, 향후 수년간 정체될 것이 예상된다."라면서, "호명고 풍천이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여 행정구역이 분리된다면 도청 이전의 원래 목적은 망각한 채 양 도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장은 자족도시 건설, 행정관리 일원화, 생활권과 행정권의 통일, 동일권 정체성 확립,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 방지 등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정구역 통합사례 도시들을 열거하여 벤치마킹 방안을 설명하고, 지방분권법에 따른 통합 추진 절차와 통합시의 각종 특례를 통한 상생발전 전략을 공유했다.

끝으로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과 예천은 도청을 공동 유치하면서 이미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며 "앞으로도 미래 천년까지 지속되는 도시가 되려면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도내 유일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선정! 장관상 수상 쾌거!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청소년안전망 구축 노력



봉화군은 21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2022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 포상 전수식'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은 청소년관련 사업 및 정책 등을 평가해 균형 있는 청소년 정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종 17개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에 봉화군이 선정됐으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정책기반강화(청소년 정책 분석 평가) △지자체 활동평가(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 청소년 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 △가점(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 운영, 청소년상담부서 운영 또는 청소년안전망팀 운영)의 5개 지표 항목의 점수를 종합해 선정된 결과이다.

봉화군은 청소년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적 참여활동 활성화, 위기청소년을 위한 보호지원 강화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연계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청소년정책을 마련하고자 힘써왔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청소년정책을 위한 봉화군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2022 새마을지도자역량강화워크숍 개최

구미시에서는 구미시새마을회(회장 오영환)주관으로 12월 21일 성주군 가야호텔에서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라는 목표 아래 120여 명의 새마을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새마을지도자역량강화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환경사업에 대한 특강과 함께, 명품 새마을지도자 역할에 대한 특강, 심폐소생술 강의를 진행했으며, 구미시 새마을운동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현장 최일선에서 지역 발전과 공동체 구현에 앞장 선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새마을유공자 표창도 진행됐다.

새마을운동유공 표창으로 김춘학 새마을지도자산동읍협의회장 등 4명의 지도자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경상북도지사 표창 9명, 구미시장 표창 25명 등 총 61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2022년 재활동수집경진대회 평가 결과 선산읍새마을남녀협의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올 한해 새마을을 활성화를 위해 애쓴 지도자와 단체들의 수상이 이어졌다.

오영환 구미시새마을회장은

"2022 한해동안 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새마을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새마을이 되겠다."라고 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박경자 새마을과장은 "올 한해 지역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해주신 새마을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오늘 워크숍이 새마을을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시민과 함께 새마을구미시대를 건설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봉원기자

전북도, 주거복지분야 국토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올해 전국단위 평가에서 3관왕 달성!

전라북도가 주거복지 분야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선정됐다.

21일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18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주거복지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국토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는 지난 9월 「제5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賞」에서 전국1위인 '종합대상', 상반기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지역특화 주거복지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올해 전국 주거복지분야 평가서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북도는 고령자(19.9%), 장애인(9.3%), 수급자(5.6%)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인 청년(23.9%), 신

혼부부(4.8%)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중심에서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확대되면서 주거지원 서비스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으로 주거 취약계층, 생산연령인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북도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응하고 도민에게 질 좋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직 개편을 통해 도 주택건축과 내에 주거복지팀을 신설하는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주택 수급자에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2천만 원 이내, 최대 6년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20억 원을 투입해 230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금리인상 등으

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까지 확대,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기간도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

이와 더불어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10개 시·군 14개소에 1,400호 정도의 「전북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지방비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 사례로 전북도는 '22년 38억 원, '23년 54억 원 등 총 92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계층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을 추진하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8억 원을 투입해 900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복권기금 등 5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 물량을 늘리고 시·군에 지원하는 보조금액도 5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수상에 국토교통부 소속 정권일 협력관의 역할도 주요했다가 평가다.

정권일 협력관은 전북도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등 가교역할을 톡톡히 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민선 8기 첫 해에 주거복지분야에서 이뤄낸 큰 성과로 전북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편안하고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 2년 연속 '잘했다'

국토교통부 주관 '제2회 주거복지대상'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전주시가 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잘 수행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21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올해 실시된 '제2회 주거복지대상' 지자체 성과평가의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주거복지대상'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사업성과, 지역별 특화사례,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 지자체 노력을 중점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16개 시·도의 96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1차 서면 평가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전주시를 비롯한 10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지난해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한민국 주거복지정책을 이끌어가는 일등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민·관 협력 및 정부정책과 연계해 지역 상황에 맞춘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제13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주거복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후 매년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전주를 찾아 △주거복지조례 제정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전주형 주거급여·사회주택·청년매입 임대주택·주택관리 해피하우스 운영·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다수의 제도·사업방식, 현황 등을 배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주시는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민·관 협력 강화로 생애 전주 맞춤형 주거까지 빈틈없는 주거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완주군, 만경강 신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위해 '신천습지관리협의체' 필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1일 '사회적경제 포럼'에서 주장



만경강의 소양천과 고산천이 합류하는 곳에 있는 신천습지의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를 위해 '신천습지관리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21일 오전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소설관스퀘어파크 2층 교육실에서 열린 '2022년 연대 협력 추진 사회적경제 의제별 포럼'에 참석, '신천습지 UN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만경강의 기적' 관련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완주군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와 협력의 장을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신천습지에는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만큼 법적 인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여론 조성 과 행정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천습지의 관리구역별 관리방안에 대해 핵심지역인 신천습지 보호지역은 사력퇴적지의 육역화 가속 저감을 위한 보 개방 등 유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낚시 금지와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관리, 야생동물 번식지 동력비행 금지, 습지보호구역 출입 제한 등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완주구역인 습지주변 관리지역에 대해서도 조류의 간섭거리를 고려한 차단막과 탐조대·탐방로 설치, 완충 식생대와 제방 숲 조성, 로드킬 방지 시설 설치, 기존 인공 웅덩이와 연계한 정화습지 기능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만경강 신천습지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 거버넌스 구축이 요청된다"며 "이를 위해 완주군과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등 만경강유역 5개 시·군의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연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천습지 보호지역과 주변 관리지역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협력을 위해 신천습지 관리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아울러 모니터링을 포함한 연구조사 사업과 교육홍보, 보전관리,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책제안과 자문 등 이해 당사자 간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만경강 신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환경부에 제안했고,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MAB: Man and the Biosphere) 프로그램을 만경강에 적용시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농촌사회 생활불복과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을 벌였다.

한편 사회적경제 포럼은 둘째 날인 22일에는 이예희 완주군청 사회복지와 과장이 '지역이 노인 정책 방향과 이슈'에 대해, 박주영 전주대 교수가 '탈(脫)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준비'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김광수/기자

익산시, 주민 밀착형 행정으로 복지수도 '우뚛'



익산시가 7년 연속 '전국 지역복지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주민밀착형 촘촘한 안전망을 갖춘 복지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복지사업평가'에서 3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차지하며 7년 연속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다관왕 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역사회 특성에 맞춰 익산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올해 평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과 총4천2백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우선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사업으로 기부 식품 등 제공하는 '나눔마켓' 운영, 아동친화도시 조성,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프라 강화 등 55개 사업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29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계를 운영해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체계를 정착시켰다.

민관협력을 통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 '다이로움 나눔공간', '다이로움 밥차' 등 익산형 주민밀착형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우수사례로 평가되어 타 지자체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신규대상자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 실시로 복지급여의 누수를 예방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분야에 711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경기침체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발생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민·관이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다이로움 익산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남원시, 도시재생의 꽃이 피어난 동문밖마을

남원 동문밖마을! 불어라 꽃바람! 사업 성공적 마무리

2022년 한 해동안 진행된 '남원 동문밖마을! 불어라 꽃바람!'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막을 내렸다.

동문밖마을은 남원시 향교동(봉당길 33)을 중심으로,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이 급변하는 근린상권과 주거의 혼재지역으로 원도심과 신시가지 확장의 경계에 위치한다. 때문에 복합취득지수가 평균 3.4등급, 소멸위험지수 2.4등급과 총 종사자 증감을 2.8등급 등으로 취약하며, 특히 노후주택비율이 1등급으로 개선 및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동문밖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노후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하며,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 운영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 예비사업을 진행했다.

상징적인 꽃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사랑꽃 넘치는 꽃 콘텐츠 제작소, ▲이야기꽃을 피우는 나-PD, ▲웃음꽃 짓는 소소한 배움터를 통하여 ▲사람꽃이 활짝 피는 동문밖마을이 되길 바라는 네가지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먼저 사랑꽃 넘치는 꽃 콘텐츠 제작소는 ▲골목꽃길 전시관, ▲꽃콘텐츠가 있는 정원 ▲꽃콘텐츠가 있는 상징마을 대문의 조성이 진행됐다. 골목꽃길 전시관과 꽃콘텐츠가 있는 상징마을 대문 조성사업에서는 두 사람이 겨우 걸을만한 좁은 골목길을 보수하고, 깔깔한 페인트칠을 거친 후



에 주민들을 위한 게시판, 문패, 우체통을 설치하고, 낡고 바스라지던 대문에 작품을 그려넣어 견고시켜지는 골목길로 탈바꿈 했다. 또한, 꽃콘텐츠가 있는 정원 사업을 통해 향교 1동 주차장에 동문밖마을의 상징물과 색색의 화단 울타리, 튼튼팍 구근 설치를 통해 회색빛 아스팔트의 공간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다.

이야기꽃을 피우는 나-PD는 주민 아카이빙을 통해 마을문화자원유산화와 사업자로 활용을 피하고 있다. '기록보관소'의 의미를 가진 아카이브(archive)를 주제로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도시재생의 참여를 기록하며 과거와 현재의 마을 정보를 기록하고,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이행과제이다.

웃음꽃 짓는 소소한 배움터에는 일자리창출형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이 삶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게 하고, 본 사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성공적

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행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동문밖마을현장지원센터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꽃골목 공방교실', '우리마을 내손으로 꽃마을 디자인교실', '건강하고 행복한 삶 꽃향기 치유교실'의 사업을 진행했으며, 총 106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주도 사업추진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의 사업역량이 강화되고 마을 공동체활성화로 '사람꽃'이 활짝 피는 동문밖마을로 변화시켰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행하여 꽃피워낸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가장 노후된 주택이

밀집했던 동문밖마을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됐으며, 활활하던 골목이 정답게 변화하고, 차갑게 닫혀있던 대문이 예쁜 모습으로 활짝 열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사업은 충분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며 '남원시민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동문밖마을의 변화된 모습을 실감하고, 도시재생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해남군민은 소통넷으로 通한다”해남소통넷 인기 최고



국 지자체에서 개발한 유사 서비스 32건 중 31건이 '폐기' 혹은 '개선' 등급을 받은 반면, 해남 소통넷은 유일하게 '유지' 등급을 받으며 지자체 공공앱 성공적 운영의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해남군 소통넷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된 군민전용 앱으로 내 고장 정보를 비롯해 생활민원서비스, 각종 알릴정보, 마을소식까지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군정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군민들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누적 가입자 1만 5,160명, 누적 게시물 수 약 1만1,000건, 하루평균 접속을 900명 등 큰 관심속에 군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 소통넷 내에 공공앱을 지속적으로 탑재해 군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 서비스중인 장난감도서관, 청년드림센터, 해남사랑상품권, 주민자치위원회 외에도 다자녀사랑카드 등을 추가한다.

소통넷은 해남군민은 물론 향우들도 이용이 가능하며, 설치 방법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소통넷을 검색, 앱을 다운받고 회원가입 후 사용할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 소통넷을 통해 군민의 군정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선 8기 소통과 참여의 실천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 중인 해남 소통넷이 뛰어난 운영 성과를 인정받으며 다시한번 빛을 발했다.

최근 정부 및 지자체의 모바일 대민 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전수 분석 결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앱 가운데 65개가 폐기 또는 폐기에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앱 개발에만 들어간 예산만 18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해남 소통넷만은 달랐다. 전

정경남/기자

전남도,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본격화

100팀 선발...1·2차 평가 거쳐 사업화·사업고도화 자금 지원

전라남도는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 지난 20일 나주에서 오리엔테이션 개최를 시작으로 지역자원 조사 등 본격적인 사업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는 1차 서면 평가, 2차 전문가 면담을 통해 타 지역 57개 팀, 도내 지역 43개 팀 등 총 100팀(130명)을 최종 선정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선 전남도와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은 지원 대상자에게 지역의 풍부한 우수자원을 소개하고, 선배 창업자의 성공사례 등 지역 연계형 청년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창의적 생각을 실현할 방안을 제시했다.

선정된 팀에는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도내 16개 군 지역의 숨은 자원



을 찾고, 특산물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팀별 활동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 자원조사 활동을 통해 사업아이템을 발굴한 후 1차 평가를 통해 우수 아이템 50팀을 선정해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2차 평가에선 1차 사업화 지원 대상자 중 지역자원 활용성, 혁신성 등을 평가해 최종 25팀을 선정, 최대 5

천만 원의 사업고도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남도는 청년이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부트캠프 운영, 멘토링, 전문 분야 특강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 온·오프라인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해 타 시

도 및 도내 청년 창업을 양성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최정운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특유의 강점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발굴·육성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의 발판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구례군, 구)문척교 민·관 상생 협력을 통해 역사 속으로

구)문척교 철거 확정에 따른 마을 대표단과 협약서 체결

전남 구례군은 구)문척교 철거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최종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7월부터 구)문척교 철거를 반대하는 “(구)문척교 보전을 위한 범군민 대책위원회”와 공청회,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수십 차례의 만남과 협의를 거친 끝에 2022년 12월 21일 구례군청 군수실에서 협약체결을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노후된 구)문척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보도교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신규로 설치될 보도교 형식과 이용방안 / 인근에 조성된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방안 / 주민들과 상

생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 / (구)문척교를 회상할 수 있는 문진정 및 기념비 이설 등으로 구례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대책위가 함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문척교 철거를 위해 민·관 상생의 마음으로 함께 협의해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보도교 설치와 함께 통행불편 해소방안, 구례마을 주변 SOC 사업과 편의시설 마련 등 해야 할 일이 많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문척교는 1972년에 준공되어 50년이 경과한 노후된 교량이며,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침수가 반복되는 교량으로서 섬진강 국가하천관리 부처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철거를 결정하여 지난 4월에 착수를 했으나, 해당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김성현/기자



또 폭설 예보...광주광역시 자원 총동원 제설대책 마련

민·관 장비·인력 총가동...비탈길·상습결빙 구간 제설 강화

22일부터 주말까지 사흘간 광주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시는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에 투입,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눈길 차량사고 뿐만 아니라 보도·골목길 보행자 낙상사고도 빈번함에 따라 광주시는 ‘큰 도로는 시청에서, 작은 도로는 구청에서, 내 집 앞 골목길은 시민이’라는 ‘눈 치우기 캠페인’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광주시는 또다시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하고, 자체 보유 장비뿐만 아니라 민간장비와 인력까지 총동원해 527개 노선 685km 구간의 제설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사진 도로와 상습결빙 구간에는 기상 상황에 대응해 제설제를 집중 살포해 도로가 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폭설 비상단계에 따라 안전안내 문자 발송, 대중교통 증편, 등교시간 조정, 공직자 눈치우기 및 출근시간 조정 등 원활한 출근길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내 가족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한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참여도 호소했다. 보행자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설장비 투입이 어

려운 골목길과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의 경우 시민 참여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폭설이 내린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접수된 눈길 사고 26건 중 15건(57.6%)이 집 앞이나 인도 등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구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상가와 주택 등 건축물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의 책임을 시민’으로 명시된 만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내 가족과 이웃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조례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제설자재(염화칼슘, 소금)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제설자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아파트 앞 진출입로 등 많은 양의 제설자재가 필요하면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에 요청하면 된다.

박남주 시 시민안전실장은 “많은 눈이 내릴 경우 선제적인 대처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나주힐링네트워크협의회,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성과 돋보여

한국농어촌공사 주관 공모 ‘주민 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1년차 사업 마무리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체험휴양마을 7곳, 나주시문화도시조성센터, 지역여행사인 여행맵프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나주힐링네트워크협의회’가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힐링네트워크협의회는 올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모한 ‘주민 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에 선정돼 1년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사업은 농촌관광 운영주체인 주민을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 등 지원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 농촌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2년 간 국비 1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협의회는 7개 체험휴양마을 주민과 함께 ‘일곱빛깔 힐링 농촌관광’을 주제로 올 해 농촌체험 관광객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했다.

사업에 참여한 마을은 이슬촌·금안한글(노안), 흥련(산포), 명하죽빛(문평), 화담(세지), 예곡왕곡·덕실(왕곡) 등이다.

협의회는 사업 추진에 앞서 마을 주



민 455명을 대상으로 ‘천연비누·화장품 제조 자격증’, ‘영상&디자인 사업 계획서 작성’, ‘음식개발’, ‘문화체험’ 등 전문성 강화 교육(총 27회)과 워크숍(2회), 선진지 견학(1회) 등을 실시했다.

각 마을에서는 ‘나주를 걸으며 힐링 발자국’(이슬촌·금안한글), ‘연꽃과 함께 하는 감상 투어’(흥련·명하죽빛), ‘원기회복 끝판왕 나주삼시제끼’(화담·예곡왕곡·덕실)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객 유치를 통해 농촌에 활기를 더했다.

여기에 나주시문화도시조성센터와 협업을 통해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을 위한 핸드메이드 핸드크림을 제조·기부하고 전남장애인연합회에는 성금을 기부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사업 2년차인 내년에는 올해 운영 실적에 기반한 각 마을 농촌관광 개발 프로그램 코스화, 소규모 인원 참

여 시스템 구축,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마을별 상품 개선, 공동 브랜드 구축 및 지역 여행사 연계 등을 통한 수익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종관 나주힐링네트워크협의회 대표 표는 “나주시가 전국적인 농촌 체험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체험휴양마을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한 농촌관광 콘텐츠 발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신경제 중심에 동해항 필요

2022

강원해양수산포럼에서 북방경제 중심항만 지정 필요성 제기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으로 유력한 신경제 국제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동해항을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중심항만으로 지정,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재)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사)강원해양수산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2 강원해양수산포럼-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도 해양항만분야 특례발굴과 대응전략"에서 (재)북방물류산업진흥원의 정동훈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신경제 국제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내 최대의 국제무역항인 동해항을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향



만기본계획에 동해항을 북방경제 중심항만으로 지정하고, 강원도는 도내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국을 신설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동해항의 거점항 육성을 위해 강원항만공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동해시 차원에서는 북방경제 특구도시 지정을 통해 장래 동해항이

자유무역항으로써 북방경제권과의 인적, 물적 교류의 중심도시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해양항만분야의 특례발굴을 주제로 진행됐는데,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상지대학교 박기관 교수가 기초발표를 맡고 이어서 강원

연구원의 김범수 박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동해안의 특례발굴에 대해, 정동훈 박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동해항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규태 동해상공회의소 회장은 강원도의 해양수산 정책이 그동안 수산분야 일변도로 운영되어 해운항만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관심, 무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면서 새경제 국제중심도시라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해운항만 분야에 대한 강원도의 적극적 관심을 요구해 주목을 끌었다.

행사를 주관한 최호영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국제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와 연결하는 관문이 필수적이며 동해항은 이를 위해 강원도가 현재 갖고 있는 가장 크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동해항 관리와 육성을 국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더 많은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양양군, 전원마을 조성 잔여용지 분양

양양군은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사업 추진된 전원마을 조성용지 중 미분양된 잔여 용지와 계약해지 된 용지에 대하여 추가로 분양-매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매각하는 필지는 양양읍 월리(양양소방서 인근)에 조성된 미분양 2필지와, 강현면 정암리에 조성된 정암지구 전원마을 중 계약이 해제된 1필지이다.

'월리 대지조성사업구역'은 총 17필지로 지난 2020년 8월 착수하여 금년 8월 준공됐다. 지난 1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2차 분양을 진행한 결과, 총 15필지가 분양됐으므로 이번에 잔여지 2필지(597㎡, 592㎡)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

분양 방법은 온비드(온라인자선처분시스템)를 활용한 최고가 입찰이고, 예정가격은 각각 597㎡ 242백만원, 592㎡ 253백만원으로, 입찰기간은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이다.

2021년 8월 조성된 '정암지구 전원마을'은 총 67필지로 2019년부터 선분양을 시작하여 2021년 9월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했으나, 계약 해제된 1필지(762.8㎡)에 대한 매각을 진행한다.

금액은 319백만원으로, 매각은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여 매수를 원하는 사람은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을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정암지구 2022. 12. 7. / 월리지구 2022. 12. 19.)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양양군에서는 총 3곳의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분양을 추진했으며, 중광정지구의 경우 68필지 분양을 완료했고, 정암지구와 월리지구도 이번 분양하는 3필지를 제외하고 분양을 모두 완료했다.

또한, 전원마을에 조성된 필지의 71%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분양됐으며, 분양 후 건축행위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중광정지구 22건(준공 15건), 정암지구 10건이 진행 중에 있는 등 도시민 유치는 전원마을 조성 목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분양되는 토지도 사전 문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조만간 모두 분양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0% 분양에 그치지 않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등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신선한 회에 깔끔한 디저트 화천산천어축제 먹거리 가득

산천어축제장 판매 메뉴개발, 최고의 맛과 영양 확보



화천군과 (재)나라가 2023 일어나라 화천산천어축제에서 선보일 음식 메뉴 개발에 한창이다.

(재)나라는 20일 축제장 내 산천어 식당에서 최문순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메뉴 시식회를 열고, 개발된 메뉴별 시식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시식회에서는 다양한 재료가 곁들여진 산천어 회, 회덮밥, 산천어 매운탕, 산천어 해물전, 산천어 볶음밥, 산천어 어묵탕 등 다양한 음식이 등장했다.

산천어 튀김과 산천어 새우버거 등 아이들을 위한 메뉴들도 눈길을 끌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이나, 단체 관광객을 위한 산천어 세트 메뉴도 다양한 구성 맛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화천산 사과와 토마토 등으로 만든 빵과 디저트는 깔끔한 맛으로

시식회 참여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화천군은 이 외에도 지난 19일부터 축제장 향토주전부리장에서 판매될 신메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 요리 전문가를 초청해 여성농업인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청정 화천산 농특산물을 원료로 한 9종의 축제음식 레시피를 전수한다.

주요 개발메뉴는 산천어 튀김, 닭강정, 치킨, 육전, 꽃빵튀김, 쌀국수 볶음, 볶음우동 등이다.

쌀국수와 우동 등 일부 가공식품을 제외하고, 산천어나 닭고기, 돼지고기, 각종 채소 등 원재료들은 모두 화천산 식자재가 사용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산천어축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을 위해 최고의 식도락을 선물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누적매출액 100억원 돌파

정선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창업기회 제공은 물론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올해 연말 기준 누적매출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2014년 4월 준공하여 2015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 농산물가공센터는 공장동 773.75㎡의 면적에 총 56종 62대의 가공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상담과 1:1 맞춤형 교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인·허가를 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52개 업체, 172농가가 입주하여 창업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참여형 제품개발을 통해 소비자 니즈에 맞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음료류, 나물편이 식품, 잼, 차, 환, 분말, 캔디류 등 97종을 출시했으며, 전문인력이 지원하는 제품생산, 자가품질검사 등의 검사로

지원, 상표나 특허출원 시 명세서 작성지원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대형매장 입점 추천, 박람회 참가 지원, 도심권 직거래장터 운영, 각종 인증 지원, 정담물 운영, 타부처 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판로개발과 홍보에 주력한 결과 올해 연말 기준 누적매출액 1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유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상품개발실 활용하여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상품홍보를 위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농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라이브 커머스, 출시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바이오가 만드는 첨단지식산업 도시, 춘천

2023년 1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창립 20주년, 새로운 비전 제시

"무공해 첨단산업은 상수원류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온 우리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 방안입니다."

1995년 춘천시 민선1기 배계섭 시장은 상수도 보호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육성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8년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국 최초 '생물산업 육성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현재 후평동 바이오타운을 조성했으며, 전문적인 바이오 육성을 위해 2003년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했다.

2003년 20개의 입주기업, 총 매출 360억원 고용인원 300여명으 첫 시작은 미약했다. 그러나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며 2014년에는 지원받는 바이오사가 100개를 넘어섰고, 고용인원도 1,400명으로 지

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1년에 관내 63개의 바이오사 매출이 1조 450억원을 기록했으며, 고용인원도 약 3천명을 달성했다.

2022년 상반기(1~6월) 역시 상승세를 유지, 매출 5,949억원을 달성한데 이어 지역 창업기업인 ㈜에드바이오택과 ㈜에이프릴바이오가 코스닥에 상장됐다.

2023년 1월 24일 창립 20주년을 맞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바이오 벤처기업 200개 집적, 매출액 2조원 달성' 목표로 새로운 비전인 '2030 NEW VISION'을 통해 춘천시 중점과제인 첨단지식산업 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로, 2022년 전국최초로 구축한 체외진단 플랫폼 사업으로 체외진단 산업 생태계 구축에 이어,

데이터 및 AI를 융합한 디지털 체외진단 고도화 사업과 오가노이드(인공장기) 사업을 통해 체외진단 산업 분야 종합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국내 전체에 생산성 2조 6천억원과 고용 3,926명의 유발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역 창업사로 코스닥에 상장된 바디텍메드, 유바이오믹스, 휴젤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창업부터 기업 상장(IPO)까지 성장사다리 지원체계를 통해 지역 성장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기업과 연구인력 등을 유치하기 위한 첨단 인프라 구축이다. ▲23년 체외진단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5년 바이오융복합산업지원센터, ▲26년 산림소재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레지던스형 바이오헬스 R&D 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국내외 기업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김창혁 원장은 "함께한 20년 함께 성장할 200년이라는 슬로건처럼 춘천 시민의 관심과 지원으로 진흥원이 성장한 만큼, 앞으로 바이오가 지역의 오랜 성장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이사장인 육동한 시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가 먼저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자 한다. 관광, 레저뿐만 아니라 첨단지식산업 조성으로 춘천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동해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예산 10% 증액

동해시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목표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도 노인복지예산을 전년 당초 예산 대비 약 10%(78억여원) 증액된 848억여원으로 편성했다.

현재 14,400여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대한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진 대상자를 추가 발굴,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매년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전담 요양원 신축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치매전담실 증축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전년 대비 약 4.8%(231명) 늘어난 5,006명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를 선발하여 공익형, 사

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일자리에 투입하는 한편,

맞춤형 노인 돌봄 분야 1,826명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 방문형·통원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3명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정 내 장비설치 등을 통해 응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북삼동 6동·16동 경로당과 삼화동 금곡경로당을 신축하고, 노후 된 경로당 개보수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양곡 구입 지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훈석 가족과장은 "2023년 노인복지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영월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26개 최종 선정

영월군은 12월 19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기부금 유인을 위한 80종의 답례품을 공급할 26개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답례품 공급업체들은 지역 대표성, 사용자 편리성, 답례품의 매력도, 품질관리 및 배송 등에서 검증되어 기부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자들의 폭넓은 선택 등의 평가

기준을 통과한 업체들로 선정됐다. 답례품 공급업체는 사과, 포도, 장류, 와인 등 농·축·임산물 및 가공 상품 총 72개 품목과 영월별빛 고운카드, 관광택시, 체험관광·서비스 상품 총 8개 품목 등을 기부자들의 선택에 따라 공급하게 된다.

영월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공급업체 교육과 협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통합창구인 '고

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월군은 지역 주민, 출향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기부자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답례품의 선택폭을 넓히고, 선호도와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영월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축산물과 가공품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라며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아이 기르기 좋은 천안시' 보육유공 대통령상 수상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보육유공 정부포상에서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 영예

천안시가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보육유공 정부포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육사업 발전과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등에 적극 노력하고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이뤘다. 부상으로 천안시 시기에 부착되는 깃발(수치)을 받았다.

천안시는 최근 4년간 20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며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흐름에 발맞추고, 영유아 공보육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해왔다.

보육 서비스 핵심인 취약보육과 다양한 시간대 틈새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68개 '야간연장', 2개 '휴일보육', 1개 '24시간 보육', 12개 '장애전문. 통합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시간제 통합형 시범사업' 지자체에 선제대 양식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부모의 일용 보육 부담을 덜고,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활로를 개척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육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 보육사업을 발굴하고,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 유지비, 안전 공제회비 지원 등 18개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명절·스승의날 특별수당과 장기근속교사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인대회, 보육 선진지 벤치마킹 연수, 우수 보육프로그램 사례발표 등을 열어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시는 보육사업 발전의 선두 역할을 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건의를 통해 국공립 전환이 불가했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등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며 안전 통학과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했다.

이 외에도 현장과 괴리된 보육제도 개선을 수시로 건의하고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썼다.

한편, 천안시 어린이집연합회는 21일 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천안시의 대통령상 수상을 축하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4대 권리를 보장을 위한 '우리아이 수호천사 되어주기' 모금캠페인에 동참해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박상돈 시장은 "수상의 영예를 뒤로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 미만의 출산율을 기록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보육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보육 현장 만족도 향상 등을 통해 '아이 기르기 좋은 천안시' 위상을 공고히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충청남도, 반복되는 차이나리스크 대책 마련 '박차'

제3차 경제상황 점검회의 개최...내년 전망·탈중국 등 주요 현안 논의

충청남도가 최근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 전망을 점검하고 차이나리스크에 따른 탈중국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홍 지사를 비롯한 경제·산업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제3차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내외 경제 상황과 도내 경제 현안을 살폈으며,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추진할 내년도 경제·산업 정책을 논의했다.

먼저 방만이 충남연구원 경제동향 분석센터장이 '현 경제 상황, 내년 전망 및 주요 이슈 점검' 보고를 통해 세계 경제 상황 분석과 도의 대응 방향을 내놨다.

방 센터장은 주요 현안 및 대책으로 △차이나리스크·탈중국화 등 중국 경제 환경 대응을 위한 전담 지원 체계 구축 △탄소중립과 친환경 경제 가속화를 위한 수소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기존 전력 기반 활용 친환경 발전산업 육성 △신용경색에 따른 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접 지원 및 중소기업 직접 지원 강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청년층 인제 유인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박경하 엠케이차이나컨설팅 대표는 '차이나리스크 본질과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중국의 경제 둔화로 인한 도내 기업 영향 완화를 위해 △국내 복귀기업 도내 유치 전략 마련 △도내 대중국 수출기업의 통상전략 수정 지원정책 추진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기업 동향을 보면, 해외 진출하는 한국기업 수는 2016년 중국이 3639개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2746개로 뒤를 이었으나 2020년에는 중국이 2326개, 베트남이 3234개로 중국보다 베트남으로의 진출이 더 활발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료 기준, 지난해 국내 복귀 상담을 한 해외 진출 기업 26개사 가운데 가장 많은 18개 기업이 중국에서 국내로의 복귀를 타진했다.

이 중 5개사가 도내 복귀했으며, 도는 국내 복귀기업 유치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 등 총 35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이날 공유한 주요 경제 현안과 동향,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탈중국 대응 방안 등 민선 8기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실현을 위한 세부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내년 도의 산업경제 정책은 △미래차·디스플레이·바이오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산업구조 개편·수소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경제 실현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사다리 지원, 투자·통상 기반 확대를 통한 시장경제 강화로 크게 세 가지"라며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이 전망되지만, 대응 방안을 찾고 힘차게 성장하는 충남경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아산시, 2022년 열린 간담회 시민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부문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시행으로 예측 가능한 선진행정 도모



아산시가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소장, 시민 건의사항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경규 아산시청 주제로 '2022년도 읍면동별 열린간담회 시민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읍면동별 열린간담회에서 건의된 총 506건의 시민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처리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시는 현재 506건의 시민 건의사항 중 96건(19.0%)은 완료했으며, 앞으로 93건(18.4%)은 2023년 내 처리를 완료하고, 늦어도 2026년까지 총 243건(누적 48.0%)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 여건상 불가피하게 중장기 검토로 분류된 166건(32.8%)과 처리불가 97건(19.2%)에 대해서도 정책 여건 변화와 기타 사정변경 등을 고려해 매년 추진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박경규 시장은 "한정된 재정을 극복하고 지역 개발을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사업 우선순위가 필수적"이라며 "매년 부문별 사업 우선순위를 작성 조정하고 단계별 순차 시행해, 예측할 수 있는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예산군,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예산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에서 충남도 내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유희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포털(공유누리)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유누리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서비스 홍보, 서비스 품질 향상, 우수시책 추진 등 4개 분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으며, 그 결과 전국 243개 지역 중 25개 지역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충남도내 군부 중 예산군이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군은 지난해 1128개의 농기계임대 물품, 체육시설, 주차장 등 신규 공공자원을 발굴했으며, 올해는 주민자치센터 등 각종 교육 및 강좌 프로그램, 공구대여 물품, 전기차 충전소 등 272개 중점자원을 집중 발굴해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인기가 높은 군청 1층 로비 전시관 이용 현황과 신활력창작소의 활발한 운영, 응봉면내 공구대여소 운영 등이 시책 사례로 공공자원 활용 가치를 높인 점이 인정을 받아 좋은 성적을 거뒀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공유해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음성군,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2017년 첫 지정 후 2번째...다음 달 협약식

음성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면 심사 등을 거쳐 음성군을 비롯해 전국 25개의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군은 2017년 첫 지정을 받아 협약기간 5년 동안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2030 음성시 건설에 초석을 마련했다.

지난 1년 동안 군은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1차 필수지표와 2차 선택지표를 추진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 ▲부서 공동지표 운영 ▲성인지 통계 구축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 ▲여성안심길 모니터링 사업 ▲돌봄노동자 지원사업 ▲여성거점공간 조성사업 ▲여성일자리협약제, 안전부서 실무협의체 등을

운영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한 점이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또한, 군민참여단 40명(여성 35명, 남성 5명)과 함께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기별 역량 강화 교육, 안전 시설물 모니터링, 지역 정책 제안,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를 발굴하는 등 젠더 거버넌스를 확립해 군민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었다.

군은 다음 달 '여성친화도시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조병욱 군수는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군민 중심, 같이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음성 만들기에 더 힘쓰겠다"며 "군민의 일상이 편리한 도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여성 일자리·돌봄이 제공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성주류화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군은 여성 친화 5대 목표인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정화/기자

청주시, 2022년 하반기 우수제안 9건 선정

청주시는 21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우수제안 선정을 위해 전문 영역의 외부제안심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제안 최우수제안'을 개최했다.

이날 심사는 하반기에 접수된 677건의 제안 중 부서검토와 사전심사를 통과한 제안을 대상으로 제안 발표와 심사를 진행했다.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파급성, 노력도 5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한 결과

동상 2건, 장려상 3건, 노력상 4건 등 총 9건의 우수제안이 선정됐다.

동상은 저수지 저수를 DB 구축 사업,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정보접근성 향상 방안이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지하수가 활용 방안(관광유치), 상습침수(막힘)구역 빛물받이 테두리 도색, 시내버스 운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선정됐다.

노력상은 상당산성 옛길 활성화, 영농폐비닐재활용탄소저감형PCR-멀칭

필름지원사업, 오창 미래지 문화관광제안, '힙'하고 '핫'한 페스티벌, 청주만의 '썸맥축제'개최가 차지했다.

시는 이 제안들을 내년엔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중앙우수 제안대회에 추천할 예정이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도 재심사와 보완해 실행을 도려해오고 있다.

김종선 정책기획과장은 "이제 청주시민의 창안은, 청주시민의 삶뿐 아니라 전국민의 삶에도 파급력을 가지

게 됐다"며 올해 중앙우수제안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아 전국 우수사례가 된 '고물상의 화려한 변신! 우리 동네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청주시는 시민의 제안에 대한 열의와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 제안활성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제대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고정화/기자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보로 활력 넘치는 예산군!

4개 산단 127만평 조성...

민간자본 유치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예산군이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보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예산제2일반산단단지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예산 케이바이오융복합단지 △예산 케이바이오융복합단지 등 총 127만평의 4개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예산제2일반산단단지는 응봉면 중곡·송석리, 오가면 월곡리 일원에 112만여㎡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총 2200억원을 투입하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하

고 시행자는 (주)예산제이산업단지로서 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금속가공, 전자부품, 기타기계 등이 주요 업종으로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은 신암면 조곡리 109·8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140만㎡ 규모에 2648억원을 투입하며, 2026년 말까지 SK에코플랜트(주)가 시행을 맡아 식품, 화학제품, 의약품, 금속가공, 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업종을 다루는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예산 케이바이오융복합단지는 예산읍 간양리와 신례원리 일원을 중심으로 121만㎡ 규모, 2235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추진하며, (주)산단단지닷컴과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행을 맡아 식품, 의약품, 1차금속, 기타기계, 광학기기 등 기업들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예산 케이바이오융복합단지는 예

산읍 관직리와 발연리 일원을 중심으로 43만㎡ 규모, 1085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주)산단단지닷컴, 동원건설산업(주)이 시행을 맡아 식품, 섬유, 화학, 의약품, 금속, 전기, 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4개 산단 조성 외에도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민 누구나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민간자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행정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군민 모두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4개 산단단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민주평통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이 2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2년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 구제적으로 실천하고자 국내외 여론 수렴, 평화통일정책 자문 등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김운봉 의원은 제15기~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통일의 의지를 알리고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용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통일 역량 강화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운봉 의원은 "시민의 통일 공감대 조성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개인 124점, 단체 5점 총 129점의 대상자를 선정해 2022년 평화통일기반 조성 유공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조혜영/기자

노관규 순천시장, '올해의 지방자치 CEO' 수상

새로운 도시의 표준을 창조하는 생태도시 전략 인정받아

노관규 순천시장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고 지역정책연구포럼이 주관한 '2022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되어 21일 선정패를 받았다.

올해 시상식은 서울 공군회관(대방동)에서 열렸으며, 제220회 지역정책연구포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의 지방자치 CEO'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지난 2012년부터 지방자치행정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장에게 수상하는 영향력 있는 상이다.

전국 226개 지자체로부터 부문별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전문가, 공무원, 지역정책연구 포럼회원 등 1400여 명의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대도시 시장, 중소도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4개 부문에서 각 1명씩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고, 노관규 시장은 전국 30만 명 미만 중소도시 시장 48명 중 최고의 지자체장으로 선정됐다.

노 시장은 14년 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이것이 국내 첫 국제정원박람회 개최(2013)로 이어졌으며, 세계 최초 흑두루미를 위해 전봇대 282개를 뽑아 순천만을 1만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찾는 글로벌 생태 관광지로 만든 것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원도심 균형발전과 활성화 전략, 연향들 물의 도시 조성, 남해안 벨트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복합문화쇼핑공간 유치, 10년 만에 국제정원박람회 개최(2023) 등 우리가 살아갈 미래도시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 전국 공무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민선 4기 시장 재임 당시 시대를 한 박자 빨리 읽은 선견지명으로 선택한 '생태도시' 전략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 전국 공무원들의 공감을 얻어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됐다."라며, "내년 4월 전격 다른 새로운 콘텐츠로 채워진 정원박람회장에서 K-정원을 경험하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여 박람회까지 홍보하는 센스있는 소감을 밝혔다.

김병수/기자

대전시, 대전을 빛낸 경제과학인 6명 시상

수출 등 6개 부문에서 제28회 대전 경제과학대상 수상자 시상



대전광역시시는 21일 대전의 경제와 과학발전에 기여한 6명에게 제28회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경제과학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및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수출, 과학기술, 벤처기업, 산학협동, 유통·소비자보호, 농업부문에서 대전을 빛낸 수상 후보자 9명을 추천받았다.

그리고 지난 12월 2일 공정관 수상자 선정을 위해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 경제과학부시장 이석봉)를 개최하여 후보자들의 공적을 심사했고, 그 결과 부문별 각 1명씩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경제과학대상 수상자로 수출 부문 (☎)이스트포토닉스 석호준 대표이사, 과학기술 부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손미영 센터장, 벤처기업 부문 (☎)나노하이에

크 김병순 대표이사, 산학협동 부문 충남대학교 LINC사업단 한병찬 교수, 유통·소비자보호 부문 전통중앙도매상가 중앙변영희 황성문 회장, 농업 부문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전광역시연합회 송석강 감사 6명을 선정했다.

수출 부문 석호준 대표이사는 광통신 관리시스템 등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여 20개 국 이상의 국가로 수출했고,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약 100만 불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공로로 선정됐다.

과학기술 부문 손미영 센터장은 인간 장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성숙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동물실험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세포모형을 개발하고 논문게재 및 지적재산권 확보한 공로로 선정됐다.

벤처기업 부문 김병순 대표이사는 방산무기 성능평가 분야, 식품포장과

제약의약 분야, 산업현장 정밀계측 분야, 타이어 제조 분야 측정기 등 63종을 국산화 연구개발로 상용화에 성공하여 내수와 수출품목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산학협동 부문 한병찬 교수는 대전·세종·충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RIS) 계획에 참여하고, 대전권 16개 대학의 협력체계인 대학연합산학협력협의체(대산협)의 실무책임교수로 활동한 공로로 선정됐다.

유통·소비자보호 부문 황성문 회장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경영 현대화 사업 추진,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소비활동에 기여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등 실시한 공로로 선정됐다.

마지막 농업 부문 송석강 감사는 시설포도 신품종 갱신으로 관내 포도농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고, 과학 영농 스마트팜 실현을 통한 안정적 생산 모델을 구축했으며, 농업관련 정책 간담회 추진 등의 공로로 선정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경제과학대상은 지역경제 및 과학발전 기여자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있는 상으로, 시에서도 수상자들과 발을 맞추어 대전을 일류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8회를 맞는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대상은 1994년부터 대전의 경제·과학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시상한 상으로 금일 수상한 6명을 포함, 총 16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원호/기자

오득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장, '올해의 버섯인상'

참바늘버섯 인공재배·꽃송이버섯 산업화 등 공로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참바늘버섯 인공재배 및 꽃송이버섯 등 국내 버섯 산업화에 기여한 오득실 소장이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연합회의 '2022 올해의 버섯인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올해의 버섯인상은 한국버섯생산자연연합회가 국내 버섯산업 발전과 버섯 재배농가의 권익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버섯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오득실 소장은 그동안 산림버섯 연구에 나서 일본에서만 재배되던 꽃송이버섯의 국내 자생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해답을 얻어 실용화 재배에 성공, 논문을 발표하고 꽃송이버섯 재배농가를 육성했다. 또 국내 최초로 참바늘버섯 인공재배 연구에 성공하는 등 버섯 분야 연구 및 재배에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버섯 분야 연구사업으로 현재 한시적 원료등재가 돼있는 참바늘버섯 등의 식품 안정성 입증 및 국내 식용원료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서양송이버섯인 트러플의 국내 서식 5종을 발견하고, 국내 자생수종 묘목에 트러플균 접종을 성공한 연구 성과에 이어 실증시험을 수행 중이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버섯 생산에 힘쓰는 국내 버섯 인들께서 주시는 상이라 의미가 크다"며 "수요 공급이 불안정한 버섯 농가가 향후 6차 산업화로 버섯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도록 버섯 연구 및 품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버섯생산자연연합회는 1997년 설립된 버섯 생산자의 자주적 협동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내 버섯 생산자 대표조직으로 선정됐으며 해마다 버섯산업의 발전과 버섯농가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람을 매년 1명씩 선정해 올해의 버섯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정해명/기자

경남교육청, 밀양고 최필숙 교사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밀양 독립운동 발굴로 우리 역사의 소중함 일깨워

경상남도교육청은 20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밀양고 최필숙 교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공무원에게 영예로운 포상 중 하나로, 전국 모든 국가·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성을 갖고 헌신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포상하며 최종 55명이 선정됐다.

최필숙 교사는 1991년 3월 1일 밀양 청도중학교(현 밀리별중학교 통합)에 부임한 이래 30년 가까이 밀양 지역 학교에 근무하며 역사교육에 힘썼다. 그동안 학생들이 나라를 사

랑하는 마음과 애항심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에 전념하고 교직원 장학회를 통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노력했다.

특히 1998년부터 밀양 지역의 독립운동을 연구하고 2008년 (사)밀양독립운동사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헌신했다. 그 결과 독립운동을 발굴하고 의열기념관이 개관하는 등 결실을 거두는 데 이바지했다. 또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끝나지 않은 그들의 노래"(2020년 세종도서 선정)를 저술하여 독립운동의 역사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재현/기자



태백시,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

태백시는 21일 투자상담실에서 2022년 하반기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6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민원마일리지제는 법정 처리 기간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 처리 기간보다 민원을 더 신속하게 처리한 경우 단축 기간만큼 민원처리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민원처리 실적평가에서 도시재생과 김민수 주무관이 최우수상, 사회복지과 유준희 주무관과 상하수도사업소 박규태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사회복지과 주재원 주무관과 도시재생과 박종호 주무관, 보건소 권성희 주무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평가기간(6월~11월) 중 태백시의 민원사무 처리 건수는 총 8,561건(고충 민원 6, 복합 민원 903, 단순 민원 3,860, 즉결 민원 1,916건, 국민신문고 1,876)으로, 평균 처리 기간 단축률은 69.91%로 나타났다.



태백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독려하고 지연을 방지하면서 시민

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세나/기자

대전 나노·반도체산업육성 발전협의회 출범 및 포럼 개최

산학연관 혁신역량 결집, 4대 전략 12개 과제 역점 추진

대전시와 한국과학기술원은 나노·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협의회 출범식 및 포럼을 12월 21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원 학술문화관에 초청 지역 국회의원, 반도체기업, 대학총장, 출연연 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 산학연관 협력을 바탕으로 반도체산업 역량을 결집하여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타 지역과 협력을 통해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인 나노·반도체산업 발전협의회 출범식에서 이장우 시장은 4대 전략 12개 과제를 담은 '나노·반도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4대 전략은 인프라, 기업, 기술, 사람을 담고 있으며, 각 전략별로 3개 과제를 담아 총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은 인프라 조성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반도체 종합연구원, 부품소재 실증평가원 설립을 추진한다.

두 번째는 기업지원 분야로 반도체 펀드 조성, 유망기업 육성, 반도체 창업을 지원한다.

세 번째 전략은 기술분야로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개발,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 패키징 핵심기술 개발로 반도체 기술을 선도한다.

네 번째는 인재양성 분야로 지역내 각 반도체 인력양성, 산학연 반도체 인재 매칭 플랫폼, 반도체 특성화대학, 대학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반도체기업을 현재 447개에서 870개로, 기업매출은 현재 2조 1천억 원에서 4조 9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전문인력을 2만 명 육성하는 한편, 일자리를 현재 5천여 개에서 2만 3천여 개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제, 지역 반도체 기업, 대학, 출연연 등 산학연관은 퍼즐조각을 맞추는 퍼포먼스를 통해 대전이 나노·반도체산업의 핵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할 것을 약속했다.

2부 포럼은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의 '반도체 지정학과 지역 반도체 성장 전략'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병훈 포항공대 교수와 제갈원 표준연구원 실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LX세미콘, SK하이닉스, 비전세미콘 등 반도체기업 관계자와 나노·반도체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대전시 반도체 육성을 위한 전략과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됐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출범식 및 포럼은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대전시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나노·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산학연관의 혁신역량 결집을 통해, 대전이 나노·반도체산업 핵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경북도 일자리 창출... 전국적으로 성과 과시해

- 고용부, 행안부 등 정부 일자리사업 성과 타 시도 모범 사례로 - - 민관 유기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매년 목표 이상 실적 달성 -

경상북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 전국적으로 그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22년 일자리 창출 정부 포상에 도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송규영 기업지원실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김정수 일자리센터장), 경북PRIDE기업CEO협회(김지연 팀장)이 '일자리창출지원'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청년 고용촉진' 부문에서 국무총리 및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9년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촉진 등 일자리 창출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일자리 창출 정부 포상에 경북도 소속 공무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일자리 사업수행기관 관계자가 2년 연속 정부 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타 시도에는 드문 사례로 경북도와 지원기관 간 일자리 사업수행에 있어 유기적 연대와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매년 목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달성하면서 이에 대한 성과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노력의 결실로 올해 지역 혁신 프로젝트 800명,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1720명 일자리 창출, 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역혁신프로젝트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았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사업 부문에서 '경북 청년인재스쿨', '스마트산단 산업과제 추진 전문연구인재 양성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매년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열린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워크숍 및 시상식에서 광역도 부문 성과 창출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

매년 지역 주력 산업과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기업과 청년의 mismatch 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청년 일자리 4100명 창출과 함께 매년 경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국비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5년 연속 국비 최다 확보

- '19년 265억, '20년 352억, '21년 378억, '22년 331억, '23년 265억

이처럼 경북도는 산업 및 정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성장과 지역발전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일자리 저변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기 위해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전략」을 기획하고 정부 사업과 연계해 종합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실현가능한 일자리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일자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경북도 중



장기 고용전략도 수립했다.

내년부터 생활경제권 중심의 일자리 전략에 일자리 지도(메뉴판)를 추가해 좀 더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영석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가는 먹거리는 일자리"라고 하면서, "경북도가 대한민국 대표 일자리 사령관으로서 매년 목표 달성과 함께 지자체 일자리 사업의 모범 사례로 전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기도, 민간 주도의 투자활성화 위한 투자유치 2.0 추진계획 본격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투기업 원스톱 고충처리 운영계획(안) 보고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로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의 협업과 국내기업 투자유치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유치 2.0 계획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2년도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열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민선 8기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방향을 전환하는 '경기도 투자유치 2.0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유관부서장, 외국인투자기업협회, 외국상공회의소 등 기업협회, 법무, 산업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의 주요 사항을 승인하는 위원회다.

투자유치 2.0 계획은 기존의 투자유치(1.0)에 민간 투자 활성화를 더한다(플러스)는 개념이다. 도는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을 포함하는 투자유치 플러스 전략으로 ▲ 해외기업 유치 ▲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 시군 투자유치역량 강화 등 3대 목표 15개 과제를 수립했다.

'투자유치 플러스 전략'은 기존의 양적 투자유치 성장을 뛰어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기업을 유치·정착시키고, 국내 진출 외투기업과 도내 혁신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며, 시·군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질적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이다.

앞으로 도는 해외 글로벌 기업의 단순 유치가 목적이 아니라, 투자유치가 경기도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공익과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집중하고, 나아가 도내 기업과의 상생까지 염두에 두어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유치로 산업생태계 확충에 기여하고, 이차전지·폐자원 등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선도기업도 적극 유치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경기도는 올 들어 세계 1위

부트 4위까지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미국), ASML(네덜란드), 팜리서치(미국), 도쿄일렉트론(일본) 등의 반도체 장비 핵심기술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는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 신소재 개발을 위한 온세미(미국)의 제조·연구시설,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한 미래기술 연구소를 잇달아 유치하면서 민선 8기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에 앞장섰다. 이러한 공적으로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 대통령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도는 해외기업의 투자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기업 원스톱 고충처리' 계획도 수립해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창구를 만들고 전담 코



디네이터를 지정해 기업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는 '맞손방문'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민우 도 투자진흥과장은 "경기도는 투자유치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라며 "민선 8기 실사구시의 철학으로 혁신을 통한 권역별 기회발전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홍태용 김해시장 "대미 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난 4~13일 미국 출장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자리에서 '대미 협력을 통한 김해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김해시는 미국 출장 이후 첫 간부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자매도시인 레이크우드와 인근 대도시인 시애틀, 그리고 보스턴을 각각 서부권과 동부권의 협력 거점으로 삼아 김해시의 특화산업인 의생명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이번 출장은 홍 시장과 류명열 시장의 의장을 비롯해 국제교류, 의생명 분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 국제우호도시인 레이크우드시와 한 단계 높은 자매도시협약을 체결,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미 의생명산업의 메카 '보스턴 바이오 생태계'를 시찰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김해시 특화산업인 의생명산업 육성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출장 결과 보고에서 레이크우드시와의 자매도시협약 체결, 교류활동뿐만 아니라 시애틀 총영사와의 면담을 통한 미 북서부 지역의

산업동향을 직원들과 공유했고 하버드 의과대학 교육병원인 스팔딩 재활병원, 하버드 의과대학 CLS(Center for Life Science), 보스턴 바이오 혁신창업공간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방문을 통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과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간의 교류협력, 비대면·전자약·디지털치료제·의료기기 산업 분야 교류방안, 홍 시장의 하버드 보건대학원 특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애썼다.

유창하진 않지만 인사말과 하버드 대 특강을 영어로 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보스턴은 인구 70만 정도로 우리 시와 비교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이번 출장에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해 의생명산업 육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성과를 만들고 시애틀과 레이크우드와도 최근 의생명산업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잘 활용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충남도, 소상공인 위기극복 3000억 원 금융지원 '맞손'

도·시군 지방정부회의서 업무협약 체결...최대 5000만 원 2년간 3.3% 이자 지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3000억 원을 투입하고, 역대 가장 많은 3.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김태홍 지사와 시장·군수 및 김두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2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시군은 보증출연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총 3000억 원의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마련했다.

지원 내용은 일자리·취약계층·창업 1000억 원, 청년창업 1000억 원, 골목상권 500억 원, 저신용자 500억 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및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5.6%(변동금리), 보증수수료 0.7%이다. 금리와 보증수수료를 합하면 6.3%



이지만, 도와 시군이 3.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만큼 실 부담금리는 3% 수준이다.

대출 신청은 도 공고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과 9개 지점, 국민은행 등에서 할 수 있다.

도내 1만 2000여 업체가 이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김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협약체결 이후 민선8기 첫 시군방문 건의사항 처리에 대한 현황 공유 및 향후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치솟는 대출금리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업체들이 여전히 대출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도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군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캐나다체크인’ 이효리, “내 모습을 보는데 너무 떨려, 끝까지 지켜봐달라” 첫 방송 소감 전해

tvN ‘캐나다 체크인’이 이효리의 가장 사적인 기록으로 따뜻한 감동과 힐링을 선사하며 캐나다 체크인인을 시작했다.

지난 17일(토) 방송된 ‘캐나다 체크인(연출 김태호·강령미, 작가 최혜정 / 제작사 TEO)’ 1회에서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며 국내 입양이 어려워 캐나다로 입양 보냈던 강아지들을 만나기 위해 제주도에서 캐나다로 향한 이효리의 첫 여정이 담겼다.

강아지들을 만나기 위해 캐나다행을 결심한 이유부터 9,000km를 달린 끝에 찾아온 강아지들과의 만남, 체크인 메이트이자 제주 동네 친구인 ‘공길 언니’와의 유쾌한 여행기는 앞으로 남은 일정에 궁금증을 높였다. 특히 이효리가 유기견 봉사를 하며 개인적으로 촬영해 둔 애정 가득한 사진, 영상 자료는 진정성을 더했다.

강아지를 입양한 가족들이 보내주는 사진들을 보며 캐나다를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다는 이효리는 강아지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지, 기분 좋은 궁금증과 설렘을 가득 안고 캐나다로 향했다.

생애 처음으로 해외 입양이 확정된 강아지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해외 이동 봉사를 경험하게 된 이효리는 이동 봉사를 통해 강아지들이 새로운 가족들과 만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유기견들을 구조하고 케어했던 일련의 과정을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는 소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이효리가 직접 구조해 입



양 가기 전까지 함께했던 강아지 ‘산’이와 재회하는 장면은 코끝 찡한 감동을 자아냈다. “자신을 알아볼지 못 알아볼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잘 사는 것만 확인하고 싶다”는 이효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이효리에게 달려와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현하는 ‘산’이는 몽클함을 선사했다. 또한 체크인 메이트 ‘공길 언니’의 손에 구조돼 입양 가기 전까지 2년 간

을 함께했던 강아지 ‘공손’이와 눈물의 재회도 이뤄졌다. ‘공길 언니’의 목소리에 귀를 찾으며 뛰어와 반응하는 ‘공손’이의 행동에 이효리 역시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버림받았던 강아지들이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으로 새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들이 진한 여운을 남겼다. 강아지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캠퍼

카를 타고 캐나다의 광활한 자연을 누비고, 서핑과 플라마켓 쇼핑 등 다채로운 일정을 예고하며 기대를 높인 ‘캐나다 체크인’에 시청자들은 “강아지와의 만남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다”, “산이와 이효리가 만나는 장면이 그림 같았다”, “효리 언니와 공길 언니의 친친 케미가 기대된다”, “공손이와 공길 언니의 재회는 올해 내 장면 중 가장 감동적이었다”, “나도 주기적으로 영원히 돌려보게 될 프로그램이 생겼다”, “보기만했는데 마음이 따뜻해졌다”.

연말과 잘 어울리는 방송이다”, “강아지들의 입양 전후 사진을 보는데 몽클했다” 등 호평을 전하기도. 이에 이효리는 “첫 방송 한참 전부터 제작진분들께 방송 언제 볼 수 있냐 물어볼 정도로 궁금했거든요. 막상 제 모습을 보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화면으로 보는 제 모습이 너무 낮설었어요. 강아지를 바라보는 내 눈빛이 이렇구나... 말투가 이렇구나.. 처음이었어요”라고 첫 방송 시청 소감을 전하며 “12일 동안 캐나다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강아지들과의 몽클했던 만남은 물론 캐나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겪었던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 체크인’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된다. 정동희기자

마마무 솔라, 초대형 DJ 서바이벌 ‘WET!’ 타이틀곡 부른다! 28일 ‘Paradise’ 발매 확정



초대형 DJ 서바이벌 ‘WET!’이 프로그램 타이틀곡 발매를 확정했다. 21일 ‘WET! : World EDM Trend (이하 WET!)’ 측은 “마마무의 솔라가 가장 참여한 ‘WET!’의 타이틀곡 ‘Paradise (파라다이스)’가 오는 28일 발매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1일 웨이브(Wave), 채널S에서 첫 방송되는 ‘WET!’은 대한민국의 EDM씬을 장악할 초대형 DJ 서바이벌로, 총상금 1억 원을 걸고 국내 최정상 DJ 레이블 간의 리얼 배틀을 그린다. 단순 경쟁 오디션이 아닌, 새로운 EDM 컬처를 창조할 신개념 프로젝트로 장소를 뛰어넘어 모든 이들이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앞서 ‘WET!’은 AIRLINE (에어라인), KASIA (카시아), LOOPS (루프스), NO WHERE NOW HERE (노 웨어 나우 히어), OUTFOOT (아웃풋), SMLE (스마일), Wonder Boys (원더 보이즈), THE Highest (더하이스트), YELLOW GROOVE (옐로우 그루브)까지 총 9팀의 참가 레이블을 공개하고 코미디 아티스트 웹보이(WETBOY)를 MC로 발탁했다. 여기에 솔라의 ‘Paradise’ 가창 소

식까지 전하며 첫 방송 전부터 화제성과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솔라는 2014년 6월 마마무로 데뷔했으며 탄탄한 가창력과 폭넓은 음역대, 섬세한 감성으로 그룹 및 솔로 활동을 아우르며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마마무의 열두 번째 미니앨범 ‘MIC ON (마이크 온)’을 발매하고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며, 각종 방송에서도 활약하며 많은 엔터테이너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솔라는 특유의 매력적인 보컬, ‘WET!’에 어울리는 텐션과 무드로 ‘Paradise’를 완벽하게 소화할 전망이다. ‘WET!’이 실력파 레이블 9팀의 뜨거운 머니 배틀을 예고하는 가운데 솔라와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시청자 및 음악 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솔라가 가장 참여한 초대형 DJ 서바이벌 ‘WET! : World EDM Trend’의 타이틀곡 ‘Paradise’는 오는 28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최만식기자

‘트롤리’ 김현주X박희순, 본방사수 부르는 관전 포인트와 시청 독려 메시지...스페셜 포스터 깜짝 공개!

‘트롤리’가 미스터리 딜레마 멜로의 서막을 연다.

SBS 새 월화드라마 ‘트롤리’(연출 김문교, 극본 류보리, 제작 스튜디오S)가 첫 방송을 앞둔 19일 김현주, 박희순이 직접 밝힌 관전 포인트와 스페셜 포스터를 깜짝 공개하며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트롤리’는 과거를 숨긴 채 살던 국회의원 아내의 비밀이 세상에 밝혀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딜레마 멜로다. 정답이 없는 선택지 앞에 혼란과 갈등을 겪는 인물들의 내면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담아낸다. ‘스트로브’ ‘사의 찬미’ ‘홍천기’에 참여한 김문교 감독과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집필한 류보리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여기에 김현주, 박희순, 김무열, 정수빈을 비롯해 류현경, 기태영, 서정연, 장광, 김미경, 길해연 등 ‘민보배(민고 보는 배우)’ 군단이 대거 가세해 완성도 높은 웰메이드 드라마의 탄생을 기대케 한다.

탄탄한 연기 내공과 완벽한 케미스트리로 극을 이끌 김현주, 박희순

의 만남만으로 기다림의 이유는 충분하다. 이날 공개된 스페셜 포스터 속, ‘김혜주’와 ‘남중도’ 그 자체인 두 배우의 눈빛과 아우라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과연 이들 부부에게 벌어진 뜻밖의 사고는 무엇이고, 어떤 비밀과 선택이 숨어 있을지 궁금증을 증폭한다.

김현주는 책 수선가이자 정치인 남중도의 아내 ‘김혜주’ 역을 맡았다. 오랜 비밀을 간직한 김혜주를 폭넓은 감정 연기로 풀어낸다. 김현주는 “배우와 스태프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현상이었다.”

특히 이번 작품에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입장을 공감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진솔하고 진실하게 임했던 것들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일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캐릭터 간의 디테일한 심리 묘사, 이를 표현하는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가 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 아닌지 고민도 해보면서 시청해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관심과 사랑



을 부탁드린다”라고 애정 어린 당부를 전했다.

박희순은 재선 국회의원이자 김혜주의 남편 ‘남중도’로 분한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정치인이자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랑꾼 남편 캐릭터로 새로운 매력을 선보인다.

박희순은 “첫 회부터 망설임 없이

빠른 전개와 섬세한 캐릭터들의 감정 표현으로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며 “좋은 배우들의 좋은 호흡이 놀라움을 선사한다. ‘김현주’를 비롯한 모든 배우들의 열연을 기대해 달라. 저는 잘 물어가겠다”라는 센스 만점 관전 포인트로 기대 심리를 자극했다.

황지원기자

아이리원(ILY:1), 동화 속 ‘청순돌이’ 돌아왔다...첫 미니앨범 타이틀곡은 ‘별꽃동화’

걸그룹 아이리원(ILY:1)이 새해를 맞아 동화처럼 아름다운 앨범을 선보인다.

아이리원(아라, 리리카, 하나, 로나, 나유, 엘바)은 19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첫 번째 미니앨범 ‘A DREAM OF ILY:1(어 드림 오브 아이리원)’ 트랙리스트 이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트랙리스트에 따르면 이번 앨범에는 1번 트랙이자 타이틀곡 ‘별꽃동화(Twinkle, Twinkle)’을 비롯해 ‘Secret Recipe(시크릿 레시피)’, ‘Tasty(테이스티)’, ‘Thanks to...(땀스 투...)’, 각 노래의 반주 버전까지 총 8개 트랙이 수록됐다.

특히 트랙리스트 이미지에는 ‘별꽃동화’라는 타이틀곡 제목이 바로 떠올려지는, 마치 동화 속 세계의 풍경을 보는 듯한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져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와 더불어 아이리원은 지난 17일 ‘A DREAM OF ILY:1’의 실물 음반 사양을 공개했다. 이번 앨범에는 멤

버들의 화사한 비주얼이 담긴 화보집부터 다양한 버전의 포토 카드와 엽서까지 다채롭고 풍성한 내용이 수록, 팬들의 소장 욕구를 높일 전망이다.

새해를 맞아 한층 더 새로워진 모습의 아이리원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미니앨범 ‘A DREAM OF ILY:1’은 내년 1월 5일 오후 6시 발매된다. 또한 실물 음반은 19일 오후 3시부터 각종 온라인 음반사이트를 통해 예약 구매할 수 있다.

정동희기자



‘일타 스캔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배우 전도연, 국가대표 반찬가게 사장님으로 퍼펙트한 변신! 캐릭터 스틸 첫 공개!

일타 스캔들’ 전도연이 따뜻한 설렘과 웃음으로 꼭 채운 로맨틱코미디로 또 한 번의 한계 없는 변신을 예고했다.

tvN 새 토일드라마 ‘일타 스캔들’(연출 유제원, 극본 양희승, 제작 스튜디오드래곤)은 사교육 전쟁터에서 펼쳐지는 국가대표 반찬가게 열혈 사장님과 대한민국 수학 일타 강사의 달콤 찹쌀떡한 로맨스를 그린다.

가장 로맨틱한 만남으로 캐스팅 소식부터 관심을 모았던 전도연과 정경호의 케미에 ‘로코 치트키’로 통하는 유제원 감독과 양희승 작가의 의기투합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드림팀을 완성, 2023년의 시작을 따뜻한 설렘으로 물들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도연은 극 중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는 ‘국가대표 반찬

가게’를 운영 중인 남행선 역을 맡았다. 가족을 위해 국가대표의 자리를 내려놨던 남행선은 다시 한번 가족을 위해 ‘열혈 입시맘’으로 변신을 꾀하면서 무한 경쟁이 넘쳐나는 사교육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인물.

여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수학 일타 강사 최치열(정경호 분)과의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를 인연으로 제대로 엮이게 되면서 달달한 설렘과 훈훈한 웃음이 공존하는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예정이다.

특히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는 책임감을 지닌 ‘외강내강’의 남행선은 전도연이 지닌 고유한 사랑스러운 매력까지 더해져 시청자들을 단숨에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가운데 공개된 스틸은 배우 전도연이 지닌 존재감과 아우라만

으로도 시선을 압도한다. 단 몇 장의 스틸만으로도 남행선 캐릭터를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전도연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중에서도 ‘국가대표 반찬가게’ 사장님으로 열일 모드 중인 순간을 포착한 스틸이 눈길을 끈다.

헬멧을 야무지게 착용하고 짐칸에 반찬 재료를 가득 채운 채 스쿠터를 모는 모습부터 손수 반찬을 만들고 포장하는 모습까지, 반찬가게 사장의 평범한 하루 일상을 고스란히 담아낸 것. 여기에 ‘전도연 표’ 러블리하고 따뜻한 미소는 보는 이들에게 기본 좋아지게 만드는 매력을 발산하며 기대감을 더한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스틸에서는 달빛이 내려앉은 밤길에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전도연의 모습이 여운을 남긴다. 미묘한 감정들이 내비치는 전도

연의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웬지 모를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일타 스캔들’을 통해 선보일 그녀의 또 한 번의 새로운 변신을 더욱 기다리게 한다.

대본 집필을 맡은 양희승 작가는 “극 중 남행선은 전쟁 같은 사교육 정글 속에서 따뜻한 빛을 발하는 캐릭터다.”

여기에 강한 생활력과 경제력이 공존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과연 이 역할을 어떻게 전도연식으로 완성했는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된다. 그리고 배우 전도연이 가진 내용을 전적으로 믿는다”라며 배우를 향한 신뢰를 아낌없이 드러내 기대감을 불을 지폈다.

한편, tvN 새 토일드라마 ‘일타 스캔들’은 2023년 1월 14일(토)에 첫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대구시 빵류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위반업체 1곳 적발

대구시는 다가오는 성탄절·연말연시를 앞두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케이크 등 빵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빵류 제조·판매업체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반업체 1곳을 적발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빵류 제조·판매업체 48개소를 점검한 결과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한 제조업체 1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홍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인천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한 약국·성인용품점 6곳 적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업소 등 총 6개소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 및 건강확보를 위해 지난 1년간 약사법을 위반한 관내 약국, 성인용품점 등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 특사경은 올해 특별단속은 물론,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약국 25개소를 대상으로는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1건(2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건(5명)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2건(2명) 등 총 6건이다.

성인용품점은 무자격자가 발기부전치료제인 전문의약품 비아그라 정 100mg, 시알리스정 20mg 등 12종의 의약품 1,351정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마트는 무자격자가 타이레놀정 500mg 등 5종 의약품 99개를 판매해 적발됐고, 약국은 약사 부재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5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며,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경과한 전문의약품 7종 219정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2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4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수사중인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약사법은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효기

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재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1만 2천여건 적발 302억 원 추징. 최근 5년 중 최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를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천 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65억 원, 2020년 127억 원)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고, 납세자 진술·현장·항공 사진 확인 등을 통해 기존 조사방식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 B씨 외 다수는 자영업민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고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현장확인 결과도 농작물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등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과 대조한 결과는 달랐다. 임차인이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농사를 대신 짓고 있는 등 직접 사용해야 하는 감면 의무사항을 무시한 '무늬만 농지'임을 적발해 5천만 원을 추징했다.

C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본점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과세정보로 적발돼 도가 5천 7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신축에

따른 취득세율은 2.8%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무소 신축은 6.8%가 적용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D법인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돼 주민세(종업원분) 2천 700만 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50명 이상이면,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에게 과세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광주광역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20~21일, 시·영산강유역환경청·자치구·야생생물관리협회 참여

광주광역시는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본격 시행되는 겨울철을 맞아 20일부터 21일까지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5개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서식지와 자치구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펼친다. 또, 건강원 등 식품취급업소와 불법 포획물 중간판매자 등도 포함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이며, 야생동물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울무, 덫, 창에, 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함께 수거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시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독극물이나 불법 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근절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서식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야

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엽구 사용 등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보면 환경신문고(128), 자치구 환경과, 경찰서로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수기자

문화와 남원
미래산업도시
<http://www.namwon.go.kr>

제10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겨울 · 눈꽃 그리고 동심으로의 여행

개 장 _ 2022. 12. 25.(일) ~ 2023. 02. 12.(일)
(임시개장 2022.12.25 ~ 12.31/ * 개장초기에는 날씨 사정으로 휴장이 될 수 있으니 사전 연락주세요 T.063-635-0301)

장 소 _ 남원 바래봉일원 (운봉읍 바래봉길 214)

주요행사 _ 눈썰매, 얼음썰매, 눈꽃동산, 눈꽃등반



경기아트센터, 국내 OTT플랫폼 '웨이브(Wavve)'에 우수공연영상 배급

총 6개 공연 콘텐츠, 12월 28일 웨이브에서 공개된다
한국무용, 클래식, 인형극 등 우수공연 콘텐츠 OTT에서 만난다

경기아트센터는, 오는 12월 28일 국내 OTT(Over The Top- 온라인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 '웨이브(www.wavve.com)'에 총 6개 공연영상 콘텐츠를 배급,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콘텐츠는 모두 '경기 우수공연 영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경기아트센터는 본 사업을 통해, 자체 기획공연 및 도내 예술단체의 우수 공연 무대를 촬영하고, 고품질 영상으로 제작하는 작업을 연간 진행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다시보기'가 어려운 공연 무대를 4K 영상으로 제공한다. 접점에서, 평소 공연을 접하기 어려웠던 OTT 사용자들도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들은 클래식, 무용, 인형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자체 기획 콘텐츠로는 경기도무용단의 <경합(2021)>, <순수-더 클래식(2022)>, 댄스필름 <상태가형태(2021)>, <경기클래식페스티벌(2022)> 이 있으며, 경기도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인 군포프라임필하모닉의 <클렘머 클래식(2022)>, '예술무대 산'의 인형극 <루루섬의 비밀(2022)> 등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모든 콘텐츠는 전문 영상 장비와 드론 등을 활용하여 촬영 및 제작했으며, 무대 위 아티스트의 표정과 몸짓을 더욱 실감나게 담아냈다. 입체적인 음향 또한 공연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하는데 한 몫 한다. 시청자들은 마치 눈 앞에서 무대가 펼쳐지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번 OTT 배급을 계기로 공연 예술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공연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웨이브(Wavve)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플랫폼에서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아트센터에서 제공하는 공

연 콘텐츠는 오는 28일부터 웨이브(Wavve)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웨이브의 '시사·교양' 카테고리에서 콘텐츠를 제공한다. 콘텐츠 소개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bhDp5i_ixts) 또한 경기아트센터 유튜브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울진군, 겨울 죽변항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한때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항구가 있었다. 자연의 축복을 받아 각종 어종이 풍부했고, 그 덕분에 사람이 떠나고 물자가 오가며 이름을 떨쳤다. 포항 구룡포항, 경주 감포항과 함께 동해 남부의 중심 어항 역할을 했던 울진 죽변항 이야기다.
내년이면 개항 100주년을 맞아, 죽변항은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동해의 거친 바다를 담은 투박함 속에 부드러운 매력의 숨어 있는 죽변항으로 초대한다.
지난 2010년 죽변면 죽변리에서 유물이 발견됐다. 초기 신석기 시대(기원전 6000년경)에 낚싯배로 쓰인 목재 선박과 노 등이었는데, 당시 이 일대에 사람들이 있었고 어업 생활상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민 이주 정책으로 일민들이 죽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후 어항의 모습을 갖추고 출어가 합법화되고, 항구의 기반이 되는 등대가 세워졌다.
이처럼 사람들은 고대부터 오랫동안 죽변항 주변에 터를 잡고 바다와 함께 살아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살기 좋은 자연환경이 큰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죽변지역은 해류의 영향으로 사계절 비교적 온난한 편이다. 이로 인해 좋은 어장이 형성될 수 있었고, 예로부터 수산물도 풍부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연어, 자해(대게), 문어, 대구, 방어 등이 울진의 토산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80년대까지, 죽변항은 각기 다른 어종으로 번성기를 누렸다. 1930년대엔 정어리가, 50-60년대엔 명태, 70-80년대엔 오징어가 있었다. 이 지역 말로 '개락' 날 정도로 어획량이 많았다.
주민들은 거친 동해바다를 누비며 만선의 기쁨을 만끽했고, 가공공장들도 많이 들어서 죽변항의 전성시대가 이어졌다. '강아지도 지전을 물고 다닌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으니 말이다.
과거의 명성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흔적으로만 남았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타고 죽변항은 또 다른 전성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수산물의 위판부터 직거래, 식당 등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수산복합공간과 죽변항 이용고도화 사업 등 수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기능을 겸비한 다목적 어항으로의 개발을 준비 중이다. 명실상부 동해안 어업전진기지로의 변신이 기대된다.
기후가 변하면서 바다 생태계도 많이 달라졌다. 그래도 죽변항은 여전히 사시사철 다양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수산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다.
특히, 겨울바다는 어느 계절보다 수산물이 풍성해 생동감이 넘친다. 이 생생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시작된 것이 바로 '죽변항 수산물축제'이다.
코로나19로 올해 두 번째로 열리게 될 2022 울진 죽변항 수산물축제는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죽변항 일대에서 진행된다. 겨울 대표 진미인 울진대게와 붉은대게부터 방어, 문어, 대구, 가자미, 곰치, 도무늬, 홍채 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수산물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수산물축제답게 수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먼저, 전문 셰프가 겨울 최고의 횡감으로 불리는 대방어를 부위별로 손질해 맛볼 수 있는 '대방어 해체쇼'와 고품질의 수산물을 짝짝 경매로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죽변항을 바다에서 감상하는 요트 승선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 중이다. 성탄절 연휴에 열리는 만큼 크리스마스 포토존과 대형트리 등과 함께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쌓을 수도 있다.
이번 축제를 200%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죽변항 위판장 투어다. 기상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 경매와 수산물 경매가 매일 아침 진행된다. 선홍빛 대게는 보기만 해도 동해의 생명력이 느껴지고, 위판장에 늘어진 다양한 수산물은 죽변항이 수산물의 천국임을 실감케 한다.
경매가 끝난 뒤 일부 상인들은 현장에서 수산물을 팔기도 한다. 갓 잡아 온 신선한 수산물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단골처럼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렇게 구입한 수산물은 그 맛이 다르다. 동해안의 진한 바다 맛을 느끼고 싶다면, 위판장 투어를 추천한다.
죽변항은 볼수록 빠져드는 곳이다. 그래서 한 번 여행하고 나면 자꾸 생각나서 두 번, 세 번 방문한다는 여행자들이 많다.
최근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죽변해안스카이라인은 죽변항 여행의 필수 코스이며, 죽변해안스카이라일 운행코스인 죽변곶을 걸어서 돌아보는 것도 추천한다.
죽변해안스카이라일 승강장 끝과 죽변 하트해변을 잇는 이 길은 '용의 골길'이라 불리는 산책로인데, 해안 풍경을 따라 숲속 사이로 걷는 것이 특별하다. 찾는 이들이 많지 않아 비교적 여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용의 골길은 걷는 중간 중간 미로처럼 숨겨진 장소들이 있다. 때론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 때론 포토존으로 활용해보길 추천한다. 그곳에 내려서면 깎아지른 절벽과 질푸른 바다의 위엄 앞에 잠시 멈춰서게 되지만, 이내 동해의 너른 바다에 포근하게 안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산책길 중간에 있는 죽변등대와 공원도 꼭 둘러보자. 경상북도 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된 죽변등대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뱃사람들의 길잡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다. 등대 맞은 편에는 동네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공원이 있는데 독도 최단거리 표지석이 있다. 죽변면 죽변리와 독도 사이 거리가 216.8km로 이 곳이 독도와 가장 가까운 땅이라는 의미이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도 보인다 하고 하니, 또 한 번 와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특히, 이 공원은 죽변항 일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 죽변항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인다. 일출 명소이자 일몰 명소로 알려져 있어, 이곳에서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해 보자.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시리도록 푸른 겨울 바다는 바다를 싫어하는 사람도 한 번에 그 매력에 빠지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죽변항에서 그 매력을 꼭 찾아보기 바란다.
장문화/기자

수원시립미술관, 12월 24일 경기도 문화의 날 'SUMA 뮤지엄데이 윈터 페스티벌' 개최

'경기도 문화의 날' 재즈 공연 및 캘리그래피 진행

수원시립미술관은 경기도 문화의 날과 연말을 맞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위한 'SUMA 뮤지엄데이 윈터 페스티벌'을 12월 24일 오후 2시 수원시립미술관 로비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권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SUMA 뮤지엄데이는 수원시립미술관이 2020년부터 진행해온 복합문화행사로 전시와 공연, 연극, 요가, 달리기 등을 결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참여와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SUMA 윈터 페스티벌'은 총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프로그램은 독일 명품 펠기구 브랜드 스테틀러코리아와 함께 손글씨 작업 캘리그래피를 운영한다. 캘리그래피 작가 문예진이 선착순 30명에게 새해 소원이 담긴 문구를 즉석에서 증명하고, 참

여자가 직접 캘리그래피 전문 도구를 이용해 자유롭게 체험도 할 수 있다. 이어서 보컬, 세션, 탭퍼 등 총 7인조로 구성된 스윙 재즈밴드 '올댓 스윙'의 흥겨운 공연이 펼쳐진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White Christmas', '산타 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하늘을 달리다', 알라딘 주제곡 'A Whole New World' 등 흥겹고 익숙한 10여 곡이 연주된다.
특히 재즈와 함께 탭댄스를 선보이는 정성급 탭퍼(Tapper)가 출연하여 미술관 로비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현재 수원시립미술관에서는 현대미술에 유희적 요소를 더해 조각,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작업을 진행하는 오스트리아 작가 에르빈 부름의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전 '에르빈 부름: 나만 없어 조각'이 진행 중이다.
조혜영/기자

12월 SUMA 윈터
미술관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12월 24일(토) 수원시립미술관 로비

- 14:00 캘리그래피
 - *자유롭게 스테틀러 물품을 이용한 개인 체험 프로그램
 - *본 프로그램은 스테틀러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 *문예진 캘리그래피 작가님의 캘리그래피 작품 증명(선착순 30명)
- 15:00 올댓 스윙 공연
 - *7인조 밴드(보컬, 스윙, 탭퍼 등)의 흥겨운 공연으로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 관람 가능합니다.

무안군, 무안 겨울 승어 축제 개최

전남 무안군은 쫄쫄하고 찰진 겨울철 대표 수산물로 무안5미 중 하나인 승어를 소재로 2023년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해제면 소재지 일원에서 2023년 무안 겨울 승어 축제를 개최한다.
무안 겨울 승어축제는 무안의 청정 갯벌에서 자란 겨울철 대표 수산물인 승어의 참맛을 알리고, 무안항도갯벌랜드와 도리포 관광자원을 연계한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와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원에서 개최해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홍보와 지역상가, 어업인 등 소득창출을 위해 기획된 축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민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인과 동아리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승어잡기 체험과 승어요리 원데이 클래스, 무안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구이존, 무안의 농수특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로컬 먹거리존 운영으로 우리 군을 대표하는 신선한 먹거리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동의보감에서는 승어를 "위를 편하게 하고 오장을 다스리며 몸에 살이 붙고 튼튼해진다. 이 물고기는 진흙을 먹으므로 백약(百藥)에 어울린다"라고 평가했다.
무안승어는 무안의 청정 갯벌을 먹은 까닭에 '빨만 먹어도 달다 달다'고 할 정도로 무안 겨울 승어회 맛이 일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살이 오른 승어에는 각종 비타민과 철분, 불포화지방 성분이 풍부해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빈혈 등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승어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서식하

며,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먹던 물고기로서 조선시대에는 임금님께 진상하던 귀한 물고기 중 하나로 승어는 맛이 뛰어나 수어(秀魚)라 불렸으며, 맛뿐 아니라 생김새까지 탁월해 승어(崇魚)라고도 불렀다.
특히 무안 승어는 예전부터 임금님께 바치는 주요 진상품 중 하나로 옛 문헌인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무안읍지 등에 주요 토산품 중 하나로 기록돼 있는 등 오래전부터 무안 승어가 차지한 위상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하얀 속살에 붉은 색을 띤 승어회가 가장 존중받는 등하고 찜지면서 고소한 맛은 매년 1월에 제 맛을 자랑한다.
군 관계자는 "무안 겨울 승어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에게는 무안 겨울 승어 축제를 소개해 주며

을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며 "우리 지역 별미이자 겨울철 건강한 먹거리인 승어로 건강과 맛도 챙기고 무안의 천혜의 자연인 갯벌을 품은 바다도 마음껏 즐겨 달라"고 말했다.
정광남/기자



해남문화관광재단, 크리스마스 산타마켓 & 버스킹 축제

해남문화관광재단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해남 지역관광추진조직(DMO) 고담꾸마 이벤트로 크리스마스 산타마켓&버스킹 축제를 연다.
축제는 2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해남문화예술회관 앞 군민광장에서 열린다.
해남DMO는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이다.
축제에서는 해남 DMO만의 특색과 크리스마스를 형상화한 먹거리, 살거리 존과 함께 체험과 공연이 어우러지는 낭만적인 연말 크리스마스 축제 공간을 구성한다.
크리스마스 산타마켓과 함께 3시부터는 버스킹 공연을 포함해 해남고등학교 밴드팀, 해남 공업고등학교 댄스팀을 초청한 공연을 진행 할 예정이다.
고담꾸마 이벤트를 통해 해남 DMO를 알리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이벤트를 통해 겨울철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혜영/기자



첫 발탁 51명, 레드카드는 감독만 --- 벤투호 4년의 기록

파울루 벤투 국가대표팀 감독이 4년여의 여정을 끝내고 고국인 포르투갈로 돌아갔다.

2018년 8월 부임한 벤투 감독은 2019 UAE 아시안컵과 두 차례의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예선과 본선을 치렀다. 최종 목표였던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만에 16강 진출을 달성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는 벤투 감독이 지휘한 4년간의 대표팀을 기록으로 살펴보았다.

▲ 역대 최장 재임기간 4년 106일
지난 2018년 8월 한국 축구대표팀 제80대 감독으로 부임한 벤투 감독은 4년 4개월동안 태극전사들을 지휘했다. 대한축구협회와 맺은 계약에 따라 재임 기간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카타르 월드컵 한국팀의 마지막 경기였던 2022년 12월 6일까지다. 따라서 정확히는 4년 106일이 된다.

4년 4개월은 지금까지 최장이었던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2년 9개월(2014년 9월 ~ 2017년 6월)을 훨씬 넘어서는 역대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단일 임기 최장 기록이다.

또한 월드컵 직후에 부임해서 다음 월드컵까지 치른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과거 이회택, 김호, 차범근, 허정무 감독도 대표팀을 맡았을 때 월드컵 예선과 본선을 이어서 치르기는 했다. 하지만 이전 월드컵이 끝난 직후에 부임한 것은 아니었다.

▲ 통산 57전 35승 13무 9패
벤투 감독 체제에서 통산 A매치 성적은 57전 35승 13무 9패다. 2020년 올림픽대표팀과 치른 두차례 평가전은 A매치가 아니므로 제외된 숫자다. 벤투 감독의 승률은 61%로, 국가대표팀 전임 감독제가 시작된 1992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승률이다. 승률 1위는 39경기에서 27승을 거둔 슈틸리케 감독이다.

35승은 역대 한국 대표팀 감독의 단일 재임 기간중 최다승 기록이기도 하다. 또 부임 이후 올해 6월 브라질에 패하기전까지 홈 경기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고 20경기 연속 무패(16승 4무)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는 1990년 이후 홈 경기 최다 연속 무패다.

9패를 당한 상대는 브라질이 3패로 가장 많고, 일본(2패)에 이어 카타르, UAE, 멕시코, 가나에 각각 한번씩 졌다.

▲ 득점 100골, 실점 46골
벤투 감독 취임후 첫 경기였던 2018년 9월 친선경기 코스타리카전(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나온 이재성의 골을 시작으로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전 백승호 골까지 정확히 100골을 터뜨렸다. 57경기에서 100골을 넣었으므로 경기당 득점률은 1.75골이다. 반면 46골을 허용해 실점률은 0.81골이다. 즉 경기당 평균 1골 이상은 허용하지 않았다.

총 슈팅 숫자는 755개에 유효 슈팅은 299개였다. 경기당 평균 슈팅 숫자는 13.2개, 평균 유효 슈팅은 5.3개였다. 755번을 쏘아 100골을 넣었으니 성공률은 13.2%였다.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경기는 2019년 10월 화성에서 열린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스리랑카를 8-0으로 꺾을 때였다. 반면, 골을 제일 많이 내준 것은 올해 6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브라질에 1-5로 패할 때였다.

▲ 27차례 소집, 최다 발탁은 조현우 25회
벤투 감독이 대표팀을 소집한 횟수는 총 27차례다. 2018년 9월 코스타리카, 칠레와 친선경기를 갖기

위해 처음으로 팀을 구성했고, 카타르 월드컵 본선이 마지막이었다.

27차례 소집 중 가장 많이 발탁된 선수는 골키퍼 조현우다. 조현우는 부상이 있었을 때 두 번만 빠지고 모두 소집됐다. 그 다음으로는 골키퍼 김승규 24회, 수비수 김영권이 23회다. 손흥민을 비롯한 유럽 클럽 소속 선수들은 FIFA가 정한 A매치 기간에만 소집되므로 상대적으로 횟수가 적다.

▲ 4년간 92명 발탁, 첫 발탁 선수만 51명
벤투호에 한번이라도 이름을 올린 선수는 총 92명이다. 이중 26명이 최종 목적인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참가했으므로 경쟁률은 3.54 대 1 이었다.

92명 선수중 벤투 감독에 의해 처음 A대표팀에 뽑힌 선수는 51명에 달한다. 4년 4개월간 51명의 선수를 새로 발탁했으니 평균 1년에 12명 정도의 새 얼굴을 선발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51명의 신입 멤버중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선수는 39명이고,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데리고 간 선수는 11명(황인범, 조규성, 김문환, 나상호, 송범근, 백승호, 이강민, 윤종규, 송민규, 정우영, 조유민)이다.

▲ 최다 출전 선수는 김영권
A매치 57회를 치르는 동안 출전 선수 명단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선수는 김영권이다. 그는 총 44경기를 뛰며 벤투호의 핵심 선수임을 보여주었다. 스트라이커 황의조가 42경기 2위, 황인범이 41경기 3위다. 그 다음은 40경기에 나선 김민재, 39경기의 손흥민이다.

57경기중 손흥민이 37경기에서 주장 완장을 찾으며, 김영권은 15경기



를 주장으로 출전했다. 박주호, 김진수, 김신욱, 홍철도 주장으로 경기에 나선 적이 있다.

▲ 황의조가 15골로 최다 득점
벤투 감독이 치른 A매치에서 골맛을 본 선수는 모두 28명이다. 이중에 황의조가 15골을 터뜨려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 특히 황의조는 조지아(유럽), 브라질(남미), 이집트(아프리카), 멕시코(북중미), 카타르(아시아), 호주(오세아니아)전에서 골을 넣어 모든 대륙 국가를 상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13골을 성공시킨 손흥민이 2위, 황희찬과 권창훈이 8골을 터뜨려 공동 3위다.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급부상한 조규성, 그리고 장신 공격수 김신욱이 6골로 그 다음 순위에 올랐다.

한편, 벤투 감독 아래에서 A매치 데뷔골을 넣은 선수는 박주호, 홍철, 황

인범 등 모두 16명이다.

▲ 도움은 손흥민, 김진수, 홍철이 공동 1위
벤투 감독이 지휘한 A매치에서 골 도움을 기록한 선수는 총 27명이다. 도움 1위는 7개를 각각 기록한 손흥민, 김진수, 홍철이다. 카타르 월드컵 전까지는 홍철이 1위였으나, 김진수가 가나전에서 조규성의 골을 어시스트하고, 손흥민이 포르투갈 경기에서 황희찬의 골에 도움을 줌으로써 공동 1위가 됐다.

황희찬이 6개, 황의조가 4개로 그 뒤를 잇는다.

▲ 퇴장은 벤투 감독만, 티켓 매진은 11차례

한국 선수들은 벤투 감독 아래에서 57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번도 레드카드를 받지 않았다. 슈틸리케 감독 시절인 지난 2016년 홍정호가 러시아

월드컵 예선 카타르전에서 당한 이후 6번째 A매치 퇴장이 없다. 유일한 퇴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벤투 감독이다.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 경기 직후 벤투 감독은 주심에게 항의하다 레드카드를 받았다.

대표팀 인기의 척도는 홈 경기 관중으로 드러난다. 벤투 감독이 치른 홈 A매치 27경기중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으로 치른 3경기를 제외한 24경기에서 총 관중 숫자는 86만9천여명이다. 경기당 평균관중은 약 3만6천명. 티켓 매진을 기록한 경기만 11차례다.

최다 관중은 지난 6월 서울에서 브라질과 친선경기를 했을 때로 64,872명이 입장했다. 반면 최소 관중은 2019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동아시아컵 홍정호의 1,070명이었다.

최광수/기자

2022년 제2차 KBO 규칙위원회 결과

KBO(총재 허규원)가 오늘 20일(화) 2022년 제2차 KBO 규칙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칙위원회에서는 투수 이물질 사용 시 제재 및 로진 관련 시행세칙, 주루 장갑에 대해 논의했다.

이물질 검사는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심판진에서 의심이 가는 경우나 상대팀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는 주심과 루심이 같이 진행하며 선수 손가락, 손등, 손바닥 등 손 전체를 대상으로 면밀히 검사 후 끈적한 특수물질 또는 금지된 이물질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반칙 행위로 간주된다. 투수 이외에도 야수, 포수 또한 심판의 판단에 따라 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선수의 이물질 사용이 적발될 경우 기존 야구규칙 3.01, 6.02(d) 1항에 따라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 및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로진과 관련해서는 일부 점성이 강한 로진을 자체 제작해서 사용할 경우 투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추가했다. KBO 리그에서 사용 가능한 로진은 KBO 또

는 미국 MLB, 일본 NPB에서 승인한 제품만 사용가능하며 해당 경기에 사용할 로진을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심판위원에게 제출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추가로 경기 중 루상의 주자들이 부상 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주루 장갑에 대한 크기 및 규정을 도입하여 길이 30cm x 너비 13cm 이내의 장갑만 사용 가능하다. 착용 후 플레이 중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플레이에 지장이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경우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황지원/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에서 우승한 황선우 선수에게 축전 보내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12월 18일, 2022 국제수영연맹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우승한 황선우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황선우 선수는 정확히 1년 전인 2021년 12월 1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같은 대회에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금메달을 목에 건 바 있다. 지난 대회에 이어 대회 2연패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기량을 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이번 결승전 기록(1분 39초 72)은 1분 40초 대의 벽을 깬 아시아 신기록이다. 2022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롱코스 자유형 200m

우승자 포포비치(루마니아, 1분 40초 79), 2020 도쿄올림픽 자유형 200m 우승자 톰 댄(영국, 1분 40초 86) 등의 경쟁자와는 1초 넘게 격차를 벌린 것으로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성과이기도 하다.

박보균 장관은 기초 종목에서 대회 2연패와 아시아 신기록을 달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예선 8위로 어렵게 결승에 진출해 불리한 레인을 배정받았음에도 황선우 선수가 보여준 기적의 레이스는 국민을 감동시키는 기적의 역경"이며,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황선우 선수의 앞으로의 도전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성지아/기자

태권도를 통한 활발한 민간외교 주역, '국기원'

각국 외교부장관 등 국내외 저명인사, 태권도인 국기원 방문 러쉬... 최고의 민간외교 활발

세계 태권도의 총본산 국기원(원장 이동섭)이 민간외교의 주역으로 갈수록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제17대 이동섭 국기원장 취임 이후 국기원에는 연일 각국 외교부장관, 체육부장관은 물론 해외 태권도 수련생 등 국내외 태권도관계자, 일반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은 국기원 내부를 둘러 보는가 하면 국기원 태권보시범단의 훈련이 다 공연을 지켜보기도 한다. 또 회원국의 국기가 게양된 국기광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조금이라도 국기원을 카메라 렌즈와 마음 속에 새겨 노련한다.

12월8일 알프레드 무투아 케냐 외교장관 일행이 국기원을 방문해 태권도복을 증정받고, 명예 6단증을 수여 받았다. 무투아 장관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의 공식 방문 대표단 일원으로 방한해 여성중 주 케냐 대사와 함께 국기원을 찾은 것.

무투아 장관은 "태권도 수련을 하는 검은띠의 아들이 꼭 국기원을 방문해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국기원 방문을 아들의 부탁에 의해 이뤄졌지만, 태권도에 대해 다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동섭원장에게 직접 전화, 케냐 대표단에게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케냐는 한국과 아프리카에서 경제, 문화분야의 중요한 파트너로 교도부 역할 등을 하고 있다. 일행은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의 시범공연을 지켜본 뒤 무투아 장관이 즉석에서 격파와 발차기 동작을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12월1~2일은 예산 우르 레만 마자리 파키스탄 체육부장관과 캐멀 데기슈 튀니지 체육부장관, 주한 튀니지 대사관 아흐메드 부그디르 부공관장 등이 방문했다. 이들은 태권도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 11월24일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IT고등학교 초청으로 방한한 대만국립농공고 태권도 수련생 등 20여 명이 방문했다. 이 학교 사무문(교3)군은 "대만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해 현재 3단이다"면서 "태권도의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에 반해 태권도 수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국 태권도협회장, 한국에 겨울 훈련차 방문한 싱가포르 태권도 수련생 20여명도 최근 다녀갔다. 막시모프 국제삼보연맹 스포츠이사가 문성



전 대한삼보연맹 회장 일행 등과 함께 국기원을 찾아 무도 태권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아들(초등학교 4학년)과 함께 국기원을 방문한 김인수씨(46.서울 강남구)는 "쉽게 만나는 태권도지만 외국인들이 이정도로 열광하고 좋아할지 몰랐다"면서 "태권도 수련을 하는 아들과 함께 찾은 국기원에서 태권도의 위대함을 다시 느꼈다"고 놀라워 했다.

이외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정치인과의 방문도 잇따랐다.

40여명 등 각 분야의 인사들이 국기원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태권도의 위상을 다시한번 생각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섭 원장은 "국기원은 단순히 태권도의 중앙조직이라는 의미를 넘어 태권도가 시작된 곳이고, 지금도 태권도의 역사를 만드는 곳이다"면서 "국기원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로 인해 차분히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지만, 원장인 나부터 민간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2022 제1회 진주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성료

'2022 진주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총 78게임, 254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주중앙지하도상가 e스포츠 커뮤니티센터 J-ARENA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진주시 e스포츠 협회가 주최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2022 진주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는 전국대회인 '제1회 진주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와 지역대회인 '진주시 아마추어 e스포츠 대전'로 나누어 진행되어 리그오브레전드와 카트라이더 2종목으로 펼쳐졌다.

대회 결과, 전국대회 리그오브레전

드 종목에서는 1위 TCF(서울), 2위 SSU(대구), 3위 호에하면광탈(창원)팀, 카트라이더 종목에서는 1위 김지환(밀양), 2위 이명재(청주), 3위 김재훈(대전)이 수상했다.

진주시민 지역대회에서는 리그오브레전드 종목 우승은 진주교대다 팀, 카트라이더 우승은 정승준이 차지했다.

부대행사에서 중앙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가수공연, 이전공공기관 직원 이벤트 경기, 체험행사 등이 열려 경기 참여자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e스포츠에 대한 관심

을 이끌어 냈다.

18일에는 경상국립대 100주년기념관 아트홀에서 게임문화재단 후원으로 김태훈 교수(경남대 심리학과)의 '보호자 게임 이해하기'강연도 진행되어, 자녀들이 게임을 즐기는 이유와 보호자의 우려에 대한 해결방법, 건전한 게임문화를 즐기 위한 방법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참석한 학부모들의 호평을 받았다.

안현수 진주시 e스포츠 협회장은 "게임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여가문화로서 깊숙이 자리 잡았고, e스포츠로 발전하며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진주시가 e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의 e스포츠 활성화 기반이자 새로운 문화축제가 되도록 힘쓰겠다. 우리 시가 경남의 e스포츠와 게임산업의 중심이 되고,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승 경기는 하모진주 진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진주시 e스포츠 협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으며,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최광용/기자

분천 한겨울 Santa Village

산타마을



2022.12.17 ~ 2023.2.12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타마을 일원

개장 및 개장축하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페스타, 푸드트럭 먹거리존,
 산타마을 캐릭터 파티, 인생네컷 사진관, 산타 썰매